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용천수의 이용관행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 협동과정

문 경 미

2015년 2월

제주지역 용천수의 이용관행 연구


지도교수 김 동 전


문 경 미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문경미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허 남 훈  (인)

위 원 김 영 관  (인)

위 원 김 동 전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4년 12월

A Study on the Conventional Use of Spring Water in Jeju Province

Gyeong-Mi, Moon

(Supervised by professor Dong-Ju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2
3.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6
II. 용천수의 개념과 이용 사례	10
1. 용천수와 산물	10
2. 용천수의 개념과 용례	12
3. 용천수의 분포 지역과 이용 사례	20
III. 용천수의 이용관행	33
1. 사용 도구	33
2. 이용 공동체	35
3. 이용 시간	42
4. 이용관행	49
5. 금기와 믿음	66
IV. 맺음말	75
참고문헌	78



<사진 목차>

사진 1]	원장내(川) 하류의 원장물	23
사진 2]	도로 밑에 있는 동물입구	23
사진 3]	도로 밑에 보존시켜 놓은 동물	24
사진 4]	통물과 머구낭물의 현재모습	27
사진 5]	서한두기 통물의 옛모습	27
사진 6]	2009년 다끄네물	29
사진 7]	2014년 다끄네물	29
사진 8]	셋도리물에서 빨래하는 모습	31
사진 9]	허벅을 지고 물을 나르는 어린이	33
사진 10]	물을 걷기 위해 공동수도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허벅과 양철통	33
사진 11]	물통에서 빨래하는 여인과 물팡에 놓인 허벅	34
사진 12]	물허벅을 물팡에 있는 물구덕에 넣어서 등에 지려고 하는 여인	34
사진 13]	허벅을 진 채로 물항에 물을 붓는 여인	34
사진 14]	통물과 머구낭물의 옛모습	46
사진 15]	현재 통물	46
사진 16]	병문내 하류에서 빨래를 하는 제주여성	57
사진 17]	동한두기물통이 사라진 후 만든 가막수물통	60
사진 18]	선반물 자리에 세워져 있었던 표석	60

<그림 목차>

그림 1]	조사대상지 : ①이호동 ②용담동 ③삼양동 7
그림 2]	용천수의 분포현황 21
그림 3]	표고별 용천수 분포 현황 21
그림 4]	이호동 : ① 원장물 ② 동물(거릿물) ③ 문수물 22
그림 5]	현재 동물의 모습 24
그림 6]	용담동 : ①선반물 ②통물· 머구낭물 ③엉물 ④다 끄네물 26
그림 7]	통물 모습 스케치 27
그림 8]	삼양동 : ①가막작지물 ②독통물 ③셋도리물 ④가물개물(감수물) ⑤새각시물 30
그림 9]	현재 삼양동 물통과 성창(포구) 31
그림 10]	용담동 한두기마을과 물이용공동체 네트워크 39
그림 11]	삼양동과 물이용공동체 네트워크 40
그림 12]	시간 변화에 따른 조간대의 수위변화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44
그림 13]	여자물통의 기본 구성 50

<표 목차>

표 1]	물때표 47
-------	-----	----------

<abstract>

A Study on the Conventional Use of Spring Water in Jeju Province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social and living cultural values of spring water in Jeju Province by exploring the conventional use of spring water. Interviews were used as a primary data gathering method. In addition, the names of spring water were examined to identify its value for a community.

The study is based on the conventional use of spring water in three villages in Jeju City, Samyang-dong, Yongdam-dong and Iho-dong. The most important task of the study is to examine how social relationships were built in communities based on the use of spring water. The study found out that the boundary of a village was clearly defined by the common use of spring water. Furthermore, it shows that by using the same spring water, villagers developed pride in their village community and led an ecological life in harmony with the sea.

The following specific conclusions have been drawn from the study.

First, spring water, which was used for daily life, was also called Sanmul, which means "water coming from Mt. Halla." This suggests that Jeju people felt a sense of community as local people who used the same water.

Second, spring water stimulated Jeju people's pride in their villages and created a sense of solidarity in the community. Their assessment of and pride i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spring water, along with the effect of spring water and their faith and

belief in spring water, played a crucial role in enhancing their sense of solidarity. That is, they proved the superiority of their villages through the spring water they used, and their pride in the spring water constituted the foundation for the continuity of village communities.

Third, *multong*, a place formed around a natural spring, represents women's life in the past. Particularly, *multong* for women, where women did a variety of things including fetching water, washing vegetables, doing laundry and washing their bodies, was the place that showed Jeju women's dramatic life. What is special about women's use of *multong* is that they led a regular life according to biological time. *Multong* for women was both the site of housework and the site of ecological life that had led traditional society.

Meanwhile, it is necessary to mention the social changes resulting from the replacement of *multong* by convenient water supply facilities in the modernization period. It is clear that the value of spring water is not confined to its use as drinking water. By using the same spring water, villagers felt a sense of belonging to their village, and the use of spring water allowed people to live an ecological life in harmony with nature. However, with the provision of water services to households and the building of modern bathrooms in private homes, the use of spring water gradually decreased, which in turn brought about the collapse of communities.

What can replace in today's society, which becomes increasingly complicated and individualized, *multong* which enriched community life and enhanced a sense of solidarity in a village? This is the question that lingered while this study was carried out.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주도는 연평균 강수량이 많은 곳임에도 화산섬이라는 특이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거나 한꺼번에 바다로 흘러가버려 지표수를 찾아보기 힘들다. 제주도에서 용천수는 상수도 시설이 보급되기 이전까지 식수뿐 아니라 생활용수, 축산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쓰여진 생명수였다. 때문에 바닷가 또는 중산간 지역에서 솟아나는 용천수는 제주인의 귀중한 식수원이었으며 마을은 용천수가 솟아나는 곳을 따라 형성되었다.

용천수를 식수원으로 살아왔던 제주인에게 물 이용관행에 큰 변화를 준 것은 공공수도가 마을마다 설치되면서 부터였다. 1953년에 최초의 금산수원 개발사업이 착수 되었고, 이후 1967년 한라산 고지대 어승생 수원 개발사업이 시작되어 1971년에 마무리되면서 제주도 전역에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상수도의 공급은 용천수의 가치를 떨어뜨렸고 전통적 삶의 배경이 되었던 물통¹⁾들은 점차 주민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관심에서 멀어져갔다.

제주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제주도개발공사에서 시판용 물을 출시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²⁾ 당시에는 물을 판매한다는 것이 매우 생소하게 여겨질 때였다. 그러나 이제는 수자원을 활용하여 맥주, 주스, 기능성 음료수에 이르기까지 제품개발과 판매가 일반화 되었고 최근에는 용암해수 개발에까지 이르고 있다. 하지만 제주인들은 지하수 개발로 인해 풍족하게만 여겨졌던 물이 부족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게 되었고, 물의 질적인 가치와 공동자원으로서의 소중함을 돌아봐

1) ‘물통’의 사전적 의미는 물을 담아 두는 통을 말한다. 하지만 제주 전역에서는 통상 우물(샘물)과 같이 물이 솟아나는 곳을 물통이라고 부른다. 본고에서도 ‘물통’은 물이 솟는 장소를 말한다.

2) ‘제주삼다수’라는 이름으로 생수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야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물질적인 대상이나 수질이 좋은 식수로서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다.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용천수가 사회적 연대를 이루는 배경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용천수는 단순한 식수원뿐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게 하는 생활문화의 배경이면서 그 사회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한 일례가 ‘물부지(물부조)’³⁾와 같은 사회적 제도를 들 수 있다. 본고는 이렇게 용천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물의 이용관행을 살펴봄으로서 그 사회조직의 성격과 생활문화의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미시사(微視史)적 연구이기도 하다.

도내에는 대략 911개소의 용천수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그러나 상수도가 공급되면서 용천수는 그 이용도가 낮아지고 무관심해지면서 수량고갈, 위치멸실, 주변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사라져가는 용천수를 둘러싼 제주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생활문화사적인 가치를 드러내고자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학문적 관심의 대상으로서 용천수 연구는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일인 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근대적 의미에서 제주도의 민속학적 연구는 일제강점기 일인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아오야기 츠나타로(靑柳綱太郎)는 1905년 체신청 직원으로 부임하였을 때 『朝鮮의 寶庫 濟州島 案

3) '물부지'란 물로써 부조(扶助)한다는 뜻이다. 상수도가 없던 시기에는 집안에 큰일을 치르게 되면 제일 우선 걱정이 물이었다. 손님을 많이 치르게 되고 음식 장만도 많아지게 되어서 주부 혼자로서는 도저히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마을 부녀자들이 한 사람이 5-6 허벅씩 물을 길어다 주는데 이것을 물부지(물부주)라고 한다.

4) 제주도, 『제주의 물, 용천수』, 1999, p.34.

內』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모토야마 히코이치(本産彦一)가 쓴 머리말을 보면 이미 그때부터 그는 제주도를 식민지 중 적당한 부원(富源)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하였다. 침략을 준비하는 일본인의 관심은 이미 제주의 지리, 역사, 풍속, 산업 등에 미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 촉탁이었던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는 1929년 『濟州島生活狀態調査』라는 보고서를 통해 당시 제주도의 생활상과 경제, 문화, 농경법 등을 조사하였다. 그는 제주도의 답(沓)이 모두 해안지대에 따라 산재해 있고 그 외에는 한 평도 없음을 근거로 제주도 지질의 특성은 제주도 상부의 물이 전부 지하에 침투하여 해안지대에서 솟아오르는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⁵⁾

제주의 민속과 관련한 대표적인 초기 연구로는 마수다 이치지(桀田一二)의 『濟州島の地理學的研究』를 들 수 있다. 마수다의 연구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초반의 제주도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마수다는 도내의 하천이 대개가 학갈천(涸渴川:乾川)이어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주의 자연마을은 바닷가 근처 용천수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⁶⁾ 이즈미 세이치(泉靖一)의 『濟州島』 역시 제주도 초기의 민속학적 연구로 주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연구는 1930년대 후반 답사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이즈미는 중산간 마을의 분포가 식생 분포와 일치하는 것을 토대로 제주마을의 형성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마수다 이치지(桀田一二)는 제주도에서는 물이 적기 때문에 용수가 많은 해안지대에 마을이 모여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이즈미 세이치(泉靖一)는 물이 풍부한 아라리 위쪽 5km 지점에 충분한 용수지대가 있음에도 마을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예를 들면서 그의 주장을 기계론적 사고라고 비판하고 있다.⁷⁾ 본 연구는 용천수와 마을 형성의 상관성을 보려는 것은 아니지만, 물이 갖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함에 있어서 마수다 이치지(桀田一二)와 이즈미 세이치(泉靖一)의 연구는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5) 善生永助, 홍성목 역, 『濟州島生活狀態調査』, 경신인쇄, 2002, p.28, pp.31-32.

6) 桀田一二, 홍성목 역, 『濟州島の地理學的研究』, 경신인쇄, 2005, p.95.

7) 위의 책, p.97, pp.111-112.

이후 국내 학자에 의해서 다시 용천수가 연구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근래에 들어서이다. 이 또한 양질의 식수로서 제주의 물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라고 할 수 있다. 김종훈, 안종성(1992),⁸⁾ 김경찬(1996),⁹⁾ 고기원 외(1998)¹⁰⁾에 의해서 수문학(水文學, hydrology),¹¹⁾ 수리학(水理學, hydraulics)¹²⁾적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된 것이 1990년대 들어서이다. 이러한 연구는 용천수의 수질이나 용출유형, 용출변화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1999년 제주도가 실시한 제주전역에 걸친 용천수의 대대적인 조사는 사라져가는 제주의 용천수의 현황을 상세히 조사하여 기록함으로써 용천수 연구의 기초자료를 완성시켰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¹³⁾

2004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명수 이용과 보전방안’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역사성, 환경성, 용출량, 이용성, 수질이라는 5가지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보존해야할 용천수를 명수로 선정하는 기준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용천수의 이용관행에 대한 부분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생활에 밀착된 생활문화사적인 접근이기 보다는 보편적인 수준에서의 이용현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역시 수질(水質)에 대한 관심을 중심에 두고 있다.

제주물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으로는 현길언은 물에 대한 인문학적 인식

-
- 8) 김종훈, 안종성, 「제주도 용천수의 수질화학적 특성과 연대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화학학회지 제 36권 제5호, 1992.
- 9) 김경찬, 「제주도 서귀포지역 용천수의 수질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10) 고기원, 문영석, 강봉래, 송시태, 박윤석, 「제주도의 용천수의 분포와 용출유형에 관한연구 (1)-제주시 및 애월읍지역에 대하여-」, 대한지질학회 학술발표회, 1998.
- 11) 지구상의 물의 순환을 대상으로 하는 지구과학의 한 분야으로 주로 육지에 있는 물의 순환 과정보다 지역적인 물의 방향·분포·이동·물균형 등에 주목적을 두고 연구하는 과학이다. : <http://ko.wikipedia.org>
- 12) 물에 관한 역학 중에서 주로 토목공학에 관한 분야로 물의 정지(靜止)·운동의 기초이론 외에 댐의 수압, 하천의 홍수,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배수관의 유량, 우물의 양수량, 하수의 침전, 오수의 처리, 항만의 해일, 해안의 표사(漂砂), 수압관의 수격압(水擊壓) 등 넓은 응용 범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하천·위생·해안·수력공학에서 각종 구조물의 설계기준으로 사용된다. : <http://www.doopedia.co.kr/doopedia>
- 13) 제주도, 『제주의 물, 용천수』, 1999.

을 설화와 신화를 통해서 설명하려하였다.¹⁴⁾ 물을 인문적 사고의 범위로 확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생활사의 문제를 신화와 설화와 같은 구전문학을 통해서 해석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구전문학에서는 거시적인 인식의 문제는 드러낼 수 있지만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과제로 현장연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아직까지의 조사와 연구과정을 살펴 볼 때, 용천수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물의 이용관행을 생활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사례가 거의 없다. 단지 마수다 이지치(桀田一二)와 이즈미 세이치(泉靖一)에 의해서 용천수와 마을형성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하는 작업이 있었다.¹⁵⁾ 하지만 분명하게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의 이견이 병치된 상태에서 연구가 마무리 되고 있음은 아쉬움이 있다. 이에 관하여는 차후 의미 있는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용천수가 생활에 친숙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로서 물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매우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반면에 물에 대한 분포와 용수의 질과 양, 그리고 수질이 좋음에 대한 가치 등은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는 제주의 물에 대한 질적인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상품화하기 위한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제주의 용천수가 가치가 있는 것은 질이 좋은 물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용천수는 제주인의 생활사 한 면을 낱낱이 증명해 줄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용천수를 주변으로 이루어진 삶의 현장을 통해서 민속지식을 확인하고 제주인의 삶을 미시적 차원에서 풀어 나갈 때 물이 갖는 자연과학적 가치가 아닌 인문학적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14) 현길언, 「물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인문학적 인식 : 제주설화를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Vol.12』, 1995, pp.33-50.

15) 桀田一二, 홍성목 역, 『濟州島の地理學的 研究』, 경신인쇄, 2005, p.96.
泉靖一, 홍성목 역, 『濟州島』, 제주우당도서관, 1999, pp.234-237.

3.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제주의 다양한 용천수 중에서 해안에서 용출되는 용천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바다와 밀접한 삶을 살아온 제주인들에게 있어서 해안용천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현재 제주도수자원본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발 200m 이하의 저지대 용천수가 제주 용천수의 92.3%에 달한다.¹⁶⁾

연구대상지를 해안용천수로 한정된 것은 그러한 수적 우위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일단은 용천수의 이용패턴을 비교함에 있어서 조사대상이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비교 연구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해안용천수는 해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형에서 솟아나는 용천수를 말하며 대략 해발 5m 이내의 지점과 해중용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용천수가 해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제주에서의 독특한 환경 때문인데 이러한 해안용천수의 독특함은 조선시대의 문헌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은 제주시 행정동¹⁷⁾지역을 조사범위로 한정하였다. 물론 제주도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조사 연구가 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연구범위를 넓히는 것보다는 적절한 범위에서 집중적인 관찰과 조사를 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연구범위를 넓힌 연구는 차후 과제로 남겨 둔다.

제주도는 한편으로는 작은 섬에 불과하지만 미시적 관점으로 볼 때는 동쪽지역과 서쪽지역의 문화가 다르고 한라산 남쪽지역과 북쪽지역의 문화가 다르다. 때문에 본 연구가 제주의 용천수를 중심으로 한 전체적 생활사를 조망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한정된 지역에서의 미시적 연구가 제주도의 문화적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초적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이 되리라 여겨진다.

16) 제주도, 『제주의 물, 용천수』, 1999, p.35.

17) 2006년에 제주도는 자치권을 보장받는 특별자치도로 출범되었다. 북제주군이 제주시로 남제주군이 서귀포시로 통합되었다. 과거의 북제주군은 읍면 체제로 행정체제를 유지하였고, 과거의 제주시 지역은 행정동 체제를 유지하였다. 여기서의 행정동지역은 과거의 제주시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 <http://ko.wikipedia.org/wiki>

이렇게 하여 선정된 3개 마을 용천수의 위치와 이름은 아래와 같다.

- 1) 이호동: 원장물, 동물
- 2) 용담동: 통물, 다끄네물
- 3) 삼양동: 셋도리물, 가물개물(감수물)



그림 1] 조사대상지 : ① 이호동 ② 용담동 ③ 삼양동

용천수 선정은 제주시 행정동지역 해안마을 중에 나름 거주민이 많으면서 물통이 비교적 보존관리가 잘 되어 있고, 입소문에 의해서 많이 애용되었다고 판단되는 용천수를 선택하였다. 물론 이렇게 선정된 3개 마을 용천수가 객관적으로 제주시 행정동지역의 물 이용관행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연구대상지의 편협함을 매우기 위해서 대상 용천수 주변 용천수들의 현황을 적절히 고찰 하였다. 연구대상지 주변의 용천수를 같이 고려하는 것으로도 연구대상 용천수의 형태가 크게 이형적인 것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용천수 선정에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장연구에 있어 용천수에 대한 사전 이해를 위해 조선시대 문헌과 구

비문학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조선시대 문헌들은 대개 제주인이 아닌 타 지인에 의해 제주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쓰여진 것이라는 점에서 정확하지 않다하여도 비교적 객관적인 서술이 되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설화와 신화와 같이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들도 물에 대한 제주인의 인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데, 이는 주관적이고 비현실적인 세계를 보여주지만 반면에 물에 관련하여 제주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현장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미 제주 용천수는 식수로든 생활용수로든 그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다. 용천수 주위로 아낙들이 모여앉아 빨래를 하거나 물을 길는 풍경을 기대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용천수를 복원한다는 시도로 정비한 것이 오히려 본래 모습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비의 방향을 다시금 확인한다는 점에서도 이 연구의 부분적인 기여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생활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참여관찰은 매우 효과적이고 훌륭한 방법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용천수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여관찰을 한다는 것은 이미 때늦은 연구방법이 되어버렸다. James P. Spradley는 참여관찰을 적용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으로 단순성, 접근용이성, 비노출성, 허락가능성, 빈번히 발생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¹⁸⁾ 지금 시점에서 용천수 연구가 참여관찰이 어려운 것은 상수도 공급으로 인해 대개 그 본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즉 빈번히 발생하는 활동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도 현재 선정한 용천수의 경우에는 빈번하지는 않지만 그 물을 이용하여 빨래를 하는 정도는 볼 수 있어서 미흡하나마 비참여관찰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근현대 이전 생활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용천수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직 생존해 있는 촌로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보완적이지만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인터뷰를 하는 것이다. 참여관찰을 할 수 없는 현장에서의 인터뷰는 입체

18) James P. Spradley, 신재영 역, 『참여관찰법』, (주)시그마프레스, 2006, p.64.

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인터뷰에는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구술자료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새삼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¹⁹⁾ 인터뷰를 함에 있어서는 자료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다양한 목소리로 들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구술사연구에서 구술자 주변사람들로부터 같은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방법으로 사실을 서로 견주어(cross-checking) 자료를 검증하는 태도와 동일하다.²⁰⁾ 인터뷰를 입체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장을 재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용천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주인의 생활문화현장을 재현하고 그 가치를 확인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의의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현장조사는 2012년 1차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2차 본 조사는 2014년 9~12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제보자는 1920~50년대 출생자를 중심으로 하였다. 현장조사 방법은 현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제보자의 기억을 통해 과거의 모습을 스케치하고 구술을 병행하였다. 구술채록은 가급적 구술자가 말하는 그대로 표기하였다. 제주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내용 전달에 어려움이 있는 내용은 구술채록 안에 괄호()를 하고 표준어를 표기해 넣었다. 연구자의 질문은 중괄호[]로 구분하였다. 다만 연구자가 질문한 바는 그 자체가 연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어로 바꾸거나 질문 요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편집하였다.

19) 윤택림, 함한희, 『구술사연구방법론』, 도서출판 아르케, 2006, pp.12-17, pp.182-185 참조.

20) 위의 책, p.108.

II. 용천수의 개념과 이용 사례

1. 용천수와 산물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에 의하면 용천수란 제주도의 해안과 중산간, 산악지역 곳곳에 지층 속을 흐르던 지하수²¹⁾가 지표와 연결된 지층이나 암석의 틈을 통해 솟아나는 물이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²²⁾ 그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정작 ‘용천수’ 라는 용어를 고문헌에서 확인하기는 어렵다. 현재 용천수라 부르는 형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고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용어는 ‘천(泉)’ 이 주로 사용되며,²³⁾ 이를 민간에서는 ‘~세미’ 라고 부르거나 ‘~물’ 이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다. 용천수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근대화과정에서 학술적인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자가 실제 현장조사를 해 보니 촌로들은 ‘용천수’ 라는 용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혹시 용천수라는 말을 아십니까?] 못들어 나서 난 몰라 그런 말. [지하수라고는 들어보셨나요?] 이젠 두경 더꺼부난(뒹어버려서) 지하실 물이랜 햄주.²⁴⁾

일제강점기 이전 제주 연구서인 아오야기 츠나타로(靑柳綱太朗)의 『朝

21) 제주도의 지하수 함양율은 총강수량의 44~46%로서 한반도 내륙지역의 평균18%를 훨씬 상회한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의 조사에 의하면 매년 14.9억~16.3억의 물이 지하수로 함양되고 있다. 제주도 지하수의 부존은 도서라는 조건을 반영하여 상위지하수뿐만 아니라 기저지하수, 준기저지하수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상위지하수는 해수면 위의 불투수층을 따라 분포하는 지하수체이며 주로 중산간지대에 나타난다. 반면에 기저지하수와 준기저지하수는 해수면 아래에 분포하는 지하수체이다.... 이와 같이 상이한 지하수의 부존양상으로 인하여 지하수면의 높이와 지하수위의 변동에 작용하는 요인이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 북제주군, 『북제주군(上)』, 2000, p.138.

22) 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local=jeju&dataType=01&contents_id=GC00701488

23) 이원진 저, 김찬홍 외7 역, 『역주탐라지』, 푸른역사, 2002, pp.40-41 참고 : 『탐라지』의 예를 들면 제주도 주민들이 민간에서 ‘~물’ 이라고 부르는 것을 『탐라지』에서는 ‘천(泉)’ 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역자는 ‘~세미’ 로 옮기고, 민간에서는 ‘~물’ 이라 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하고 있다.

24) 강갑인(여), 1923년생, 이호동.

鮮의 寶庫 濟州島 案内』에서 샘이 솟는다는 의미로 ‘용출(湧出)’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특히 그는 고려사에서 삼선인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을 용출(湧出)하였다고 한다.²⁵⁾ 그러면서 삼선인이 땅에서 용출(湧出)한다는 표현이 샘과 같이 솟아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조선총독부 촉탁인 켄쇼 에이스케(善生永助)는 1929년에 『濟州島生活狀態調査』라는 보고서에서 흐르는 물을 유수(流水)라 하고, 해안에서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경우를 용천수(湧泉水)라고 표기하고 있다.²⁶⁾

[용천수라는 말은 언제 썼나요?] 그 당시에는 용천수란 몰랐지. 이제야 유식하니까 용천수여 뭐여 허는 디. 그 당시는 그런 거 없고 그냥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물. 제주 사람들은 지식이 짧고 해서 육지에서나 그런 거 썼지.²⁷⁾

[용천수라는 말은 언제 썼나요?] 지금 말이니까 용천수란 말을 붙였지 옛날에는 용천수란 말이 어섯주마씨(없었지요).....제주도 마을 이름이나 모든 것이 한문 송상 해가지고.....²⁸⁾

‘용천수’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 어른의 경우에는 그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했기 보다는 식자(識者)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용천수’라는 용어는 한문의 의미로 볼 때 땅속에 있는 물이 지상으로 올라왔다는 의미가 강하다. 한편 일상적으로는 제주의 샘물을 ‘산물’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서의 산은 대개 한라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물통의 물을 신성한 산으로부터 흘러내려왔다는 의미로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죠. 비가 많이 오며는 물이 잘 내려오고, 비가 안 오며는 조금밖에 안 내려와요. [내려오는 물인가요? 솟아나는 물인가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죠.²⁹⁾

25) 靑柳綱太朗, 홍종우 역, 『朝鮮의 寶庫 濟州島 案内(1905)』, 우당도서관, 1998, p.158.

26) 桀田一二, 홍성목 역, 『濟州島生活狀態調査』, 경신인쇄, 2002, pp.9-10.

27) 한인순(여), 1954년생, 용담동.

한정렬(여), 1962년생, 용담동.

28) 김충식(남), 1934년생, 용담동.

[물이 부족하지 않았나요?] 흐르는 물인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인 디 물이 무사
족아게(적을 리가 있나). 그 당시에는 풍족하게 살았.³⁰⁾

‘산물’이라는 말은 중산간과 같은 내지에서 혹은 산속에서 발견되는
샘물이라는 의미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전반적으로 해안에
솟아나는 물 역시도 산물이라고 부른다. 이는 물의 속성을 솟아나는 지점
을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원지를 기준으로 말하려는 것이
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용천수’라는 학술적 용어와 ‘산물’이라는 일상
에서의 용어는 매우 다른 관점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
서는 현재 제주 샘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미 ‘용천수’가 많이 쓰이고
있으므로 그를 따르기로 한다. 다만 제주인들 모두가 한라산에서 발원한
물을 마시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산물’이라는 용어에는 제주인들
이 하나의 물 공동체적 운명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2. 용천수의 개념과 용례

1) 물 이름 고찰

용천수 이름에는 물이 솟아나는 위치나 양에 따라 독특하게 붙여지기도
한다. 그중에는 지역이 달라도 같은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
는데 이는 용천수의 형태, 위치, 사용처 등 주요한 특징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나열한 제주도의 용천수들은 바로 그런 사례의 일부인데
그 뜻하는 의미는 대략 다음과 같다.³¹⁾

29) 고남훈(남), 1938년생, 삼양동.

30) 한정렬(여), 1962년생, 용담동.

31) 제주도, 『제주의 물, 용천수』, 1999, p.67, p.71. 인용.

- 통물: 물이 바위틈에서 새어 나오거나 땅속에서 솟아 흘러 ‘물통’이 형성되거나 인위적으로 물통을 만든 경우에 통물이라 부른다.
- 영물: 해안이나 하천가의 큰 바위(영덕) 밑에서 솟아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 큰물: 용출량이 많거나 수면적이 넓은 물 또는 마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물을 의미한다.
- 생이물: 용출량이 매우 적어 새(생이)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졸졸 흐르는 물을 의미한다.
- 구멍물: 장마철 등 비가 많이 올 때에만 솟아나는 물을 의미한다.
- 할망물: 집에서 토신제를 지내거나 굿 등의 정성을 드릴 때, 또는 산모가 젖이 잘 안 나올 때 이용하는 물로서 제주도의 토속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물이다.
- 빌레물: ‘빌레’란 지면 또는 땅에 넓적하고 평평하게 묻힌 너럭바위를 뜻하는 제주어로 이와 같은 빌레 틈에서 용천수가 솟아나는 경우를 이렇게 부른다.
- 절물: 절간이나 절간주변에 위치해 있어 주로 절에서 이용하는 용천수다.
- 고망물: ‘고망’이란 구멍을 뜻하는 제주도 방언으로 암석의 틈이나 땅이 움푹 패인 지점의 구멍에서 물이 솟아나는 경우이다.
- 켓물: 해안이나 하천가에 동굴처럼 안으로 조금 들어간 지점의 바위틈에서 솟아나는 물을 의미한다.

물 이름을 붙이는 방식은 대개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물통의 형태, 두 번째는 물의 양과 질, 세 번째는 물의 위치를 특징으로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물통의 형태를 특징으로 하는 사례는 통물, 영물, 빌레물, 고망물, 켓물이 있으며 물의 양과 질을 특징으로 하는 사례는 큰물, 생이물, 구멍³²⁾물이 있다. 기타 물통의 위치를 특징으로 하는 경우는 그 지명으로 물 이름을 붙이는 경우로 본고의 조사대상지에서도 원장물, 다끄네물, 가물개물 등이 그런 사례이다. 『제주의 물, 용천수』에 의하면 이름이 사용되는 빈도수를 볼 때 통물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큰물, 영물, 생이물 등의 순이다. 본고의 조사지에서도 삼양1동에 큰물이 있고 다끄네물의 옛이름이 큰물이었다고 기억하는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다.³³⁾ 또한 용담동 서한두기에서는 통물과 영물이 있다.

32) 구멍(구멍)이란 장마가 진때에 평지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곳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증보 제주어사전』, 2009, p.89.

김재호는 경상북도 예천군 선동마을의 물 이용을 연구함에 있어서 물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김재호의 연구는 산골마을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제주 해안마을에서의 물 이용관행을 살펴보는 데에도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다. 특히 샘물의 분류체계를 통해 물의 이용관행을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김재호가 제시한 샘물의 분류체계는 주로 샘물과 관련된 이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김재호의 분류체계에서 공간적으로 동쪽샘과 서쪽샘, 그리고 아랫말샘과 웃말샘으로 구분하는 것은 제주도에서의 마을 공간을 구분하는 체계와도 공통되는 체계로 여겨진다. 또한 물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아 자주 사용하는 샘을 ‘큰샘’으로 부르는데 제주도에서 ‘큰물(통)’으로 불리는 용천수가 있는 것과는 비교해볼 수 있다.³⁴⁾

2) 물 이름 용례

① 동물(이호동)

동물은 이호동 현사마을 포구에 있는 물통이다. 물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물통 이름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이호동의 원장물이라는 이름은 물통 위치가 원장내(川)에 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하지만 동물(東물)의 경우에는 마을이름이 동동(東洞)이어서 붙은 이름이 아니다. 동물이라는 이름은 새로운 포구가 원장포 동쪽에 새로 생기면서 덩달아 붙은 이름이다. 하지만 정작 동물이 있는 현사마을 주민들 중에는 동물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저기 물통 이름이 뭐죠?] 물통 이름이 어서(없어). 저쪽은 원장내가 이시난(있으니까) 원장내물이고. 원장내에 물 이시난 원장내라고 해서. 여긴 내(川) 어시난(없으니까) 물이름이 어서.³⁵⁾

33) 이호에서 용담동 다끄네마을로 시집 온 김종정(여, 1921년생)씨는 현재 다끄네물로 불리는 물통 이름을 문자 다른 이름은 없고 그냥 ‘큰물’이라고만 불렀다고 했다. : 2014년 12월 구술 채록

34) 김재호, 앞의 책, p.153 참조.

35) 김임순(여), 1930년생, 이호동.

[여기를 동물이라고 하던데요?] 예, 동물 동물 험니다게. 셋마을 사름덜은 ‘동물에 강(가서) 이거 허라. 빨래 행 오라.’ 영 동물이런 험니다게. [그럼 여기 사람들은 동물이라고 안 합니까?] 경 안 곱니다게(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셋마을 사름덜이 동물, 셋물 했주기 그거 이름이 아니고.³⁶⁾

김임순씨는 동물 바로 앞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통에 달리 이름이 없다고 하였다. 동물이란 이름은 셋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상대적인 지명이라는 것이다. 특히 물통 이름에 지명을 붙여서 부르는 경우에는 그 마을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물을 길러왔던 이웃마을에서 부르는 이름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여선 안 된다. 물통 이름을 누가 부른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건 거린(릿)물. 가운데 물통이난.....이건 이름이 어서. 가운데꺼나.....이 마을 가운데 물이나. 거 밖에 몰라. ‘아이고 남당 거린(릿)물 좋아!’ 경 해냇주게(그렇게 말 했었지.)³⁷⁾

강갑인은 현재 92세로 이호동 현사마을에서 면담한 최고령이었다. 그만큼 그의 면담내용은 중요한데 현사마을 가운데 있는 물통이어서 거린(릿)물이라고 하였다고 했다. 그 의미는 물통 위치가 중요한 길거리에 바로 면해 있었다는 말인 듯하였다.

옛날에 여기 아래물통 아래물통 했는데...저기가면 맹감물도 있고, 덕지물도 있고 원장물도 이신디...저기가면 여기 물통 물통 해수다.³⁸⁾

이희문은 동물의 바로 위 30m 지점에 살고 있었다. 이희문이 제보하는 내용으로는 마을아래에 있는 물통이어서 아래(알)물통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동물이 있는 위치가 마을 아래 바닷가이기도 했지만 물통이 예전에도 길 아래 2m정도 내려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에서 안이 훤히 보이는 구조였다고 하니 그 이름도 그럴듯해 보인다.

동물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통용된 명칭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제

36) 김임순(여), 1930년생, 이호동.

37) 강갑인(여), 1923년생, 이호동.

38) 이희문(남), 1954년생, 이호동.

주의 물, 용천수』에서도 ‘동물(알물,서물)’ 이라고 같이 기록하고 있다.³⁹⁾ 조사당시 동물이라는 호칭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칭(異稱)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동물통을 부르는 이름을 보면 세 가지 정도인데, 이름 없이 불렀다는 것도 하나의 유형으로 보면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그 이름은 아래와 같다.

1. 동물통 / 2. 알물(아래물)통 / 3. 거린(릿)물통 / 4. 그냥 물통(이름 없음)

물통 이름이 달리 없었다고 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물통 이름이 정확하지 않거나 없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주로 사용하는 물통이 하나뿐이었던 물통에 굳이 달리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물통’이라는 보통명사로도 그 곳을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찌면 위의 네 가지 사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의미 있는 이름은 그냥 ‘물통’이었을 것이다. 점차 물통이 있는 장소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암묵적 합의가 통일이 된 후에 그 물통 이름이 거린(릿)물통이 되든지 아래물통이 되든지 고착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을 것이다. 즉 자신의 처한 공간 지리적 입장에서 물 이름을 부르기 편하게 붙이는 것이다.

② 통물(용담동)

용담동 한천 하류에 있는 솟아나는 물 이름은 ‘통물’이다. 물이 솟아나는 장소의 이름은 달리 없고 물에만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어찌면 장소를 이해하는 특이한 경우이다. 굳이 통물이 있는 장소에 이름을 붙인다면 ‘통물통’이 된다. ‘원장물’ 이니 ‘다끄네물’ 이니 ‘셋도리물’ 이니 하는 것은 그곳에서 솟아나는 물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그 물통을 가리키는 이름이기도 하다. 물통 이름을 따로 짓지 않고 물이 그 장소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를 어떻 불러시든(불렀는가하면) 이 ‘한데기(한두기) 통물 길레(길으러) 감수

39) 제주도, 『제주의 물, 용천수』, 1999, p.108.

다.’ 경 해났다고. ‘한데기 통물’⁴⁰⁾

[그 물통이름이 뭐죠?] 요 물통 이름은 나도 모르겠네. 그냥 물통이엔도 허고.
..⁴¹⁾

물통은 우물과 마찬가지로 물이 나는 장소를 가리키는 보통명사라고 할 수 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면 물통에 간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지만 그게 무슨 물통이냐고 물으면 대답은 ‘통물’ 이라고 한다. 물 이름이 장소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서한두기에 사시는 분들은 물을 어디에서 길어다 먹었나요?] 이 마을 물은 막 좋았주마씨. 요디 영이라 해가지고 예, 영이란 말은 낭떠러지를 보고 영이라 합니다. 고어(古語)우다. 여름에 물이 팔팔 나와가지고 예 막 여자들 목욕 해수다. 영 세멘트로 해영이네 이수다. 우리는 요 밑에서 머구냥 알이라고 해서예 머구냥 아래 물 허고예.⁴²⁾

머구냥물은 물통 곁에 먹구슬나무가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또 영물이라는 것은 낭떠러지 바위 밑에서 나는 물이라고 해서 영물이라고 한 것이다. 물 이름에 물이 나는 장소의 특징을 빌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그 특징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성같이 돌을 들렀다고.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이 넓이로. 성을 싸가지고 이 넓이로.....물만 나가게끔이 바다쪽으로. [그러면 높이는 어느 정도로 쌓았나요?] 1m 50정도. 이렇게 성을 쌓았단 말이야. [한 줄로 쌓지 않고 넓게 쌓았다는 말 인가요?] 그렇지 넓게 해가지고. [물이 담 안으로 안 들어왔나요?] 안들어 왔지. 안 들어와. 물이 들어와도 그 담 너머 들어 올 정도는 아니니까. 물이 빠져 나가는 거이 한 50 센티 정도.....구멍만 내가지고. 물이 빠지고.⁴³⁾

통물이라는 이름은 역시 그 물통의 특징 때문에 붙은 이름인 듯하다. 통물은 동한두기에게 가장 많이 애용되는 물통이었기도 하거니와 물을 예워싼 돌담이 워낙 두텁고 견고한 형태를 하고 있었다. 돌담은 사람 키 높

40) 오영수(남), 1936년생. 용담동.

41) 김충식(남), 1934년생. 용담동.

42) 김충식(남), 1934년생. 용담동.

43) 오영수(남), 1936년생. 용담동.

이 정도로 쌓았을 뿐 아니라 그 두께가 성과 같았다는 표현은 통물통의 옛 사진에서도 확인이 된다.(사진 5 참고) 이러한 형태적 특징이 통물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인 듯하다.

③ 큰물(삼양동)

삼양1동 앞개의 ‘큰물’이라는 이름은 제주 전역에서 잘 볼 수 있는 명칭이다. 전술한 바처럼 예천군에서 ‘큰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⁴⁴⁾ 여기서 ‘큰-’이라는 것은 규모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큰물이라는 명칭은 조천, 신촌에서도 쓰이며 제주도에서 13군데로⁴⁵⁾ 통물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명칭이다.

삼양1동 앞개의 큰물은 두 군데 몸을 씻는 곳을 만들고 남탕과 여탕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다. 남탕과 여탕이라는 이름은 제주 물통의 본래 목적이 목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이름이다. 현장에서 늘 들을 수 있는 이름은 남자물통, 여자물통이라는 이름이다. 목욕이 물통에서의 주된 기능이 아니었음은 한두기 물통을 고찰하면서 설명하였다. 탕(湯)과 통(桶)은 발음은 유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의미는 천지차이다.

물통은 물을 가두어놓은 저수조과 같은 의미이다. 그 물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규정하지는 않고 형상을 표현한 것이다. 과거의 물통은 몸을 씻는 곳이기도 했지만 온갖 생활용수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교류의 장이었다. 즉, 물통은 특정 기능으로 한정지을 수 없는 장소이다. 반면에 목욕하는 곳이라는 기능이 강조되어버린 탕(湯)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상수도가 공급되는 근대화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④ 가물개물(삼양동)

삼양2동 가물개물은 삼양동에 수원지를 만들면서 사라진 물 이름이다.

44) 위의 책, p.32.

45) 제주도, 『제주의 물, 용천수』, 1999, p.71.

수원지가 원래 가물개물 이랏주게(이였지). 무사(왜) 가물개엔 허시냐 허른(했는
가 하연). 물이 원채 도니까(다니까). 감주(甘酒) 고추록(처럼). 여기 아래는 가
물개, 차부(차고지) 이신디는 두른돌, 1동은 설개, 3동은 벌랑.⁴⁶⁾

우리 가물개물을 가뉘 뉘(두고) 우리가 물을 만들어 주랜허난(달라고하니까). 원
래 감수통물⁴⁷⁾(가물개물)은 먹는 물통 하나, 밀엔 빨래통이며 무시거 크게 원
돌러그네 크게 두 개로 나뉘정 이서넛주..... 게난 가물개 사람들은 이제도 후회
허여.⁴⁸⁾

강순석은 가물개의 의미를 단물(甘水)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였
으며, 박용후와 오성찬도 맛이 좋은 샘물이 있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으
로 추측 하였다.⁴⁹⁾ 『제주어사전』에는 가물개라는 이름이 삼양2동 옛이름
이기도 하면서 이호2동 현사마을의 옛이름이기도 하다며 그 의미를 감은
-모살이라는 의미로 보았다.⁵⁰⁾ 즉 ‘가물’ 은 검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오창명 역시 가물개를 가사포(可沙浦)라는 옛 지명의 사례를 들고, 물개
는 ‘모래’의 제주어로 보아서 가물개를 ‘감은-물개, 검은 모래가 있는
개’⁵¹⁾라고 보았다. 『삼양동지』는 가물개를 검은 모래로 덮인 해안으로
보면서 동시에 가물개물은 물이 달다는데서 연유한 지명이라고 하였
다.⁵²⁾ 이는 동일한 말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으로 무엇이 옳은 의미인지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홍순자의 인터뷰에서 나온 감수물이라는 것도 가물개물의 이칭(異稱)이
였을 것이며 ‘맛이 달다’는 의미로 수질(水質)을 특징으로 붙인 이름일
것이다. 감수(甘水)라는 의미는 단물의 한자 표기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46) 홍순자(여), 1939년생, 삼양동.

47) 제보자는 ‘가물개물’이라는 말과 ‘감수통물’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였다.

48) 홍순자(여), 1939년생, 삼양동.

49) 강순석, 『제주도 해안을 가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04, p.298.

박용후, 『제주도 옛땅이름 연구』, 제주문화사, 1992, p.95.

오성찬, 『제주도 토속지명사전』, 민음사, 1992, p.188.

50) 제주특별자치도, 『증보 제주어사전』, 2009, p.20.

51)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연구1』, 제주대학교출판부, 2007, p.463.

52) 삼양동지편찬위원회, 『삼양동지』, 태화인쇄, 2008, p.733.

물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에는 질(質)에 의미를 두는 방법과 지명(地名)에 의미를 두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때문에 ‘감수물’은 물의 질에 의미를 두고 붙인 이름이며 가물개물은 지명에 의미를 두고 붙인 이름이다. 물 이름에 두세 가지의 이칭(異稱)이 있을 수 있음은 앞서 이호동 동물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3. 용천수의 분포지역과 이용 사례

1) 분포 지역

제주도가 1999년에 처음으로 조사한 용천수는 911개였다. 이 조사는 제주도 전역에 걸쳐 이루어진 용천수의 분포에 대한 최초의 현황 조사 기록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총 911개소의 용천수 중 제주시에는 540개소(당시의 제주시⁵³⁾ 142개소, 북제주군 398개소)가 분포하고 있고, 서귀포시에는 371개소(당시의 서귀포시⁵⁴⁾ 168개소, 남제주군 203개소)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⁵⁵⁾ 그 후 멸실된 곳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의 물, 용천수』에서는 용천수를 용출하는 지역의 고도에 따라 크게 해안 지역 용천수(해발 200m 이하), 중산간 지역 용천수(해발 200~600m), 산간 지역 용천수(해발 600m 이상)로 구분하고 있다. 수적으로는 해발 200m 이하에 분포하는 해안 지역 용천수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다(그림 1참고). 중산간 지역과 산간 지역은 해안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용천수의 분포 비율은 낮아지고 그에 따라 마을이나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도 상대적으로 적다. 즉 오늘날 제주도 마을이 해안선을 따라 환상(環狀)형태로 만들어진 것도 용천수의 분포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53) 2006년에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통합되어 현재의 제주시가 되었다.

54) 2006년에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통합되어 현재의 서귀포시가 되었다.

55) 제주도, 『제주의 물, 용천수』, 1999, p.34.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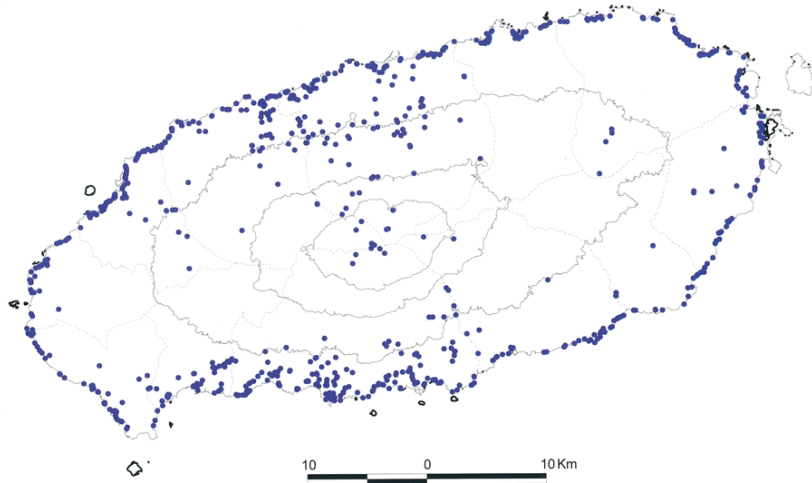


그림 2] 용천수의 분포현황 (『제주의 물, 용천수』, p.50 인용)

물이 귀한 제주도에서 용천수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도 도민들의 생활의 근거이고 기초가 되는 생명수로서 소중한 자연 자원임에 틀림없다. 용천수는 단순히 식수로써만이 아니라 목욕이나 빨래, 가축용 등 일상생활에서까지 매우 다양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 제주인들은 용천수의 활용가치를 알고 용천수가 솟아나는 곳에는 돌담을 쌓아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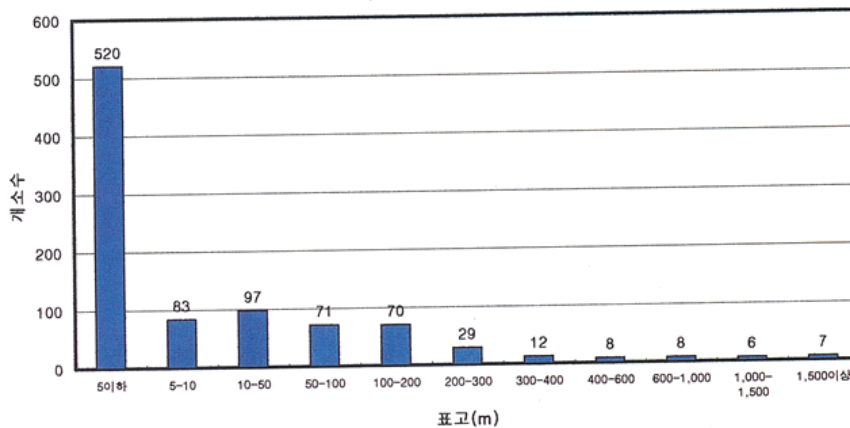


그림 3] 표고별 용천수 분포 현황 (『제주의 물, 용천수』 p.34 인용)

특히 해안 지역 용천수 중에서 바닷가의 조간대(潮間帶)나 해발 5m 이

하의 지점에서 솟아나는 용천수는 만조 시에 쉽게 해수의 침범을 받아 담수(淡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인들은 이러한 해안지역 용천수를 생활용수로 다양하게 활용하여왔다. 이런 이유로 고문헌에서는 제주인들의 식수사정이 매우 어려웠다고 묘사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2) 이용 사례

① 이호동(원장물, 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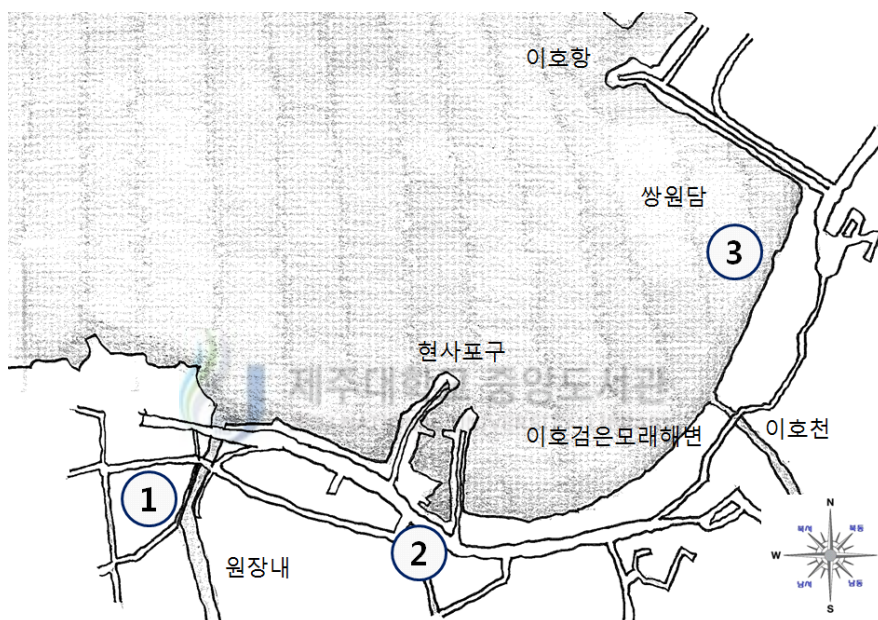


그림 4] 이호동 : ① 원장물 ② 동물(거릿물) ③ 문수물

이호동에는 서쪽마을 원장내에 있는 원장물과 동쪽마을인 현사마을에 있는 동물이 있다. 이호동에는 본래 원장내 하류에 이 마을 포구가 있었다. 『이호동지』에 의하면 원장내 하류에 있는 포구라고 해서 원장개라하고 원장포(遠長浦)라고 표기하였었다. 그런데 1927년 물난리를 당하여 포구가 파손되고 1929년에 현재의 포구를 새로 지어 ‘동개’라고 이름하였다고 한다. ‘동개’는 ‘원장개’ 동쪽에 새로 지은 개(浦)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⁵⁶⁾ ‘동물’이라는 이름도 동개 앞에 있는 물통에서 비롯된

56) 이호동지편찬위원회, 『이호동지』, 고인쇄종합사, 2007. p.257.

이름으로 여겨진다.

원래부터 원장내 물통은 조그맣게 돌로 담을 둘러치고 안에는 칸을 갈라놓은 모습이였다. 그곳은 주로 여자들이 이용하고 남자들은 그 아래쪽으로 조그맣게 사각형으로 담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남자 목욕탕도 이서 나서. 아니 옛날은 에와(에워) 지지도 않고, 에와도 조그맣게 돌 다 왕 세멘으로 허연 그건 여자들 물 길어다먹고 빨래 허고, 남자들은 밑으로 동으로 사각형으로. 돌로 다완 해꼴락(조그만) 허게.⁵⁷⁾

원장물도 안에는 칸 갈라져도 칸이 갈라지긴 갈라졌는데, 그냥 광광하게 내 터져나면, 물이 팡팡 내려와 그네. 허민(그러면), 밖에서도 빨고, 안에서도 빨고. 저렇게 막 머해나진 안 해수다. 그자 요정도, 여름에 목욕 할 때는.. 안보이게 돌담을 요 높이로... 키 높이가 아니고 반으로 해나수다.⁵⁸⁾

대개의 물통 위치를 보면, 물 흐르는 방향의 상류 쪽에 여자물통이 있고 남자물통은 하류에 위치하거나 바닷가에 위치하게 된다. 이는 물통 구조에서 ‘식수통→송키(채소) 씻는 통→빨래통’ 순서로 되어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남자물통의 주된 용도는 몸을 씻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식수와 생활용수를 사용해야하는 여자물통보다 상류에 만들기를 꺼리는 것이다.



사진 1] 원장내(川) 하류의 원장물.



사진 2] 도로 밑에 있는 동물입구.

현재 이호동 현사마을에 있는 동물의 형태는 해안도로 하부에 동굴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예전 동물의 본 모습은 좁은 보행길 옆에 붙어있

57) 장남옥(남), 1937년생, 이호동.

58) 김정순(여), 1947년생, 이호동.

었는데 해안도로가 확장되어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 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안으로 들어가는 물통 하고 길 사이가 좁아나서. 좁고, 길도 넓히는 바람에 물통도 알더레(아래로) 지하로 들어가분거지.⁵⁹⁾

현재 이호동에는 여름마다 해수욕을 하러 오는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동물은 아직까지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이유로 해수욕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몸 씻는 장소로 애용되고 있다.

그전엔 널러낫주게(넓었지) 빙 허게게. 그냥 빨래도 허고게. 둥그렁 허연. 막 널러낫주게. 빨래들도 허고, 여름에 그자 클 때에 목욕도 허고. 몸도 세고 허어나신디. 지금은 해수욕장 오는 사람들 뺨에 거기서 목욕 못 험니께. [옛날부터 남자어른들은 근접을 안했던 모양이쥬?] 남자들은 거디 땡기지(다니지) 못하게 막. 우리 여자들이 ‘아이고게 못 살키여 빨래도 못 허고. 목욕도 못 허고게...’ 막 들어그네 와자와자 합니다. 정신이 히어뜩허여(아찔해). 경허민(그렇게하면)
60)

원래 동물은 남자들은 이용할 수 없는 여성들만의 공간이었다. 지금은 물을 뜨러 갈 일이 없기도 하지만 본래의 이용관행을 모르는 방문자들은 입구에 여성전용 빨래터라고 간판을 붙여 놓았어도 영문을 모르고 남성들이 불쑥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과거에 물 길러 다녔던 마을 여성들에게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다.

59) 장남옥(남), 1937년생, 이호동.

60) 김임순(여), 1930년생, 이호동.



사진 3] 도로 밑에 보존시켜 놓은 동물. 시멘트로 만들었지만 빨래터와 물팡 등을 유지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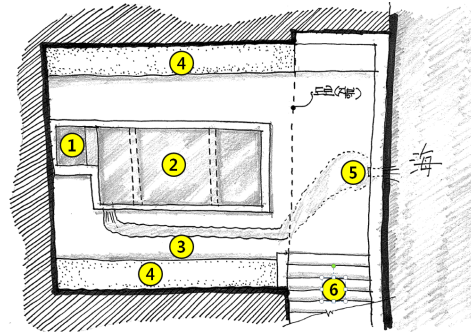


그림 5] 현재 동물의 모습 : ①식수통 ② 송키(채소) 씻는 통 ③빨래하는 곳 ④물팡 ⑤바다로 나가는 물구멍 ⑥입구 계단

물통의 중요함은 도로를 낼 때에 이 물을 보호하려는 주민들의 노력으로 알 수 있다. 이미 상수도는 집집마다 공급되어 있었지만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물통 위로 도로가 난다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임에 틀림없었다.

물이 저 귀한 깨끗한 물이 이신디. 물이 아까우니까 살리자 해서. 저 계단도 처음엔 공사 맡은 사람이.....이렇게 좁아나서. 좁게 허난 우리 집사람이 안 된다고. 공사 거진(거의) 현 때에 넓히려. 넓혀난 자리 지금도 이실꺼.....계단 좀 좁으난. 나이트 사람 발 잘못 디디면 뭐한다고 해서.....⁶¹⁾

동물은 해안으로 붙어있는 좁은 길 아래에 놓여 있어서 빨래를 하는 모습이 길에서 내려다 보였다고 한다. 상수도의 공급은 많은 용천수를 매우고 사라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지만 이는 주민들에게 물통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던 탓이기도 하다.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마을에서 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도로 하부에 동굴을 만들어서까지 보호하려고 했던 동물의 역사는 생활사에서 용천수가 갖는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② 용담동(통물, 다끄네물)

61) 장남옥(남), 1937년생, 이호동.



그림 6] 용담동 : ①선반물 ② 통물·머구낭물 ③ 영물 ④ 다끄네물

용담동에는 한라산에서 발원한 병문내와 한내라는 큰 하천이 있다. 병문내와 한내 사이에 동한두기라는 마을이 있고 한내를 사이에 두고 서쪽에는 서한두기라는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해안을 따라 더 서쪽으로 가면 다끄내(수근동)라는 마을이 있다. 이렇게 동한두기-서한두기-다끄내란 마을이 용담동의 해안면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예로부터 병문내는 전반적으로 건천이지만 하류인 해안으로 내려오면서는 물의 용출량이 풍부하였다. 현재 서한두기의 대표 물통이었던 선반물은 병문내가 복개되면서 사라지고 표석만이 남아있지만 그 옆 용담수원지가 개발되어 서한두기 마을의 수량이 풍부했음을 대변해주고 있다.

한내는 건천으로 내려오다 바닷가에 다다르면 중간 중간에 용출되는 수량이 많아지면서 제법 수심이 깊은 못을 이루는데 이곳을 용수(龍湫)라고도 한다. 고광민은 용수가 여러 문헌에서 ‘龍湫’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용수’를 한자로 기록한 것이며, ‘수’는 沼의 제주어라고 하고 있다.⁶²⁾ 용수는 솟아나는 단물과 바닷물과 만나는 지점이면서 예로부터 뱃놀이를 즐기던 곳이기도 하였다. 지금은 구름다리를 놓아 동한두기와 서한두기를 연결하고 있다. 용수 구름다리 밑 서한두기 쪽으로 ‘용수개맛’이라는 포구가 있었는데 그 포구 주변에 마을 주민들이 이용했던 ‘통

62) 고광민, 『濟州島浦口研究』, 도서출판 각, 2004. p.275.



사진 4] 통물과 머구낭물의 현재모습

물’ 과 ‘머구낭물’ 이 있다.

이 용수 물도 예 바닥에서 우터래 영 솟아서 솟쿠쳐수다. 한라산에서 내려온 물이 이로 오면 다 우로 올라오는 거라 마씨. 머구낭물도 그렇게 허고. 머구낭물은 물이 막 싸불민 열만데 물이 들민 굉장히 좋아마씨.⁶³⁾

세월이 흘러 동력선이 일반화되면서 포구의 본래 모습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그 위치를 알 수는 있게 시멘트로 정비한 모습이 보인다. 서한두기 물통들은 마을에 수도가 들어오면서 이용가치가 떨어졌고 결국 포구의 장식품처럼 붙어있는 실정이다. 이곳 물통을 감싸 안았던 포구가 본래 모습을 잃게 되면서 물통의 옛 모습이 사라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남]



사진 5] 서한두기 통물의 옛모습. 물통담이 배를 매어두는 갯담 역할을 하고 있다. : 『용담동지』, p.193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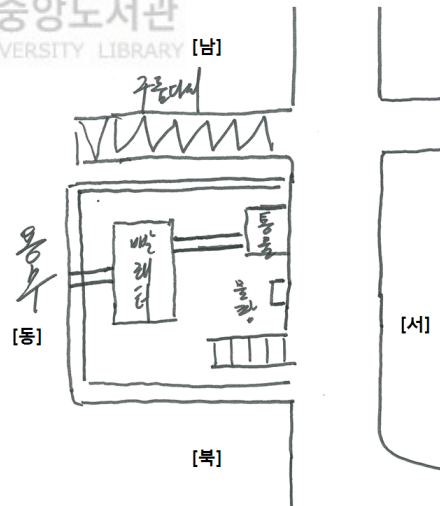


그림 7] 통물 모습 스케치 : 오영수(남, 1936년생) 제보

지금 옛날 모습 이서난 자리에 세멘트만 현 거주마씨. 돌구멍으로 솟아나오는 거라. 빨래 돌맹이들 이렇게 영 노민 예. 사람들이 이디 안곡(안고). 물이 흘러

63) 김충식(남), 1934년생, 용담동.

내리주마씨. 빨래한 물이 이래 같일이 없지. 물이 계속 높은 데서 흘러내리니까.⁶⁴⁾

예전 통물 모습을 보면 포구의 배를 매는 갯담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때문에 통물 담장은 일반 담장과는 달리 사람이 그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넓었다.

고광민은 용천수를 끼고 있는 포구에는 담수로 인해 배 밑창에 서식하는 선식충인 소의 서식을 차단하게 된다고 한다.⁶⁵⁾ 삼양동의 셋도리물이나 이호동의 동물이나 모두 포구를 끼고 있다. 뱃일을 주로 하는 해안마을에서 용천수의 중요성은 이 점에서도 확인된다.

여기가 물이 솟는 거고, 여기가 물이 내려 온 거고. [원류는 여기고 어쨌든 붙어 있는 거로군요.] 그럴지. 붙어있다고 봐야지. 통만 따로 식수통하고...⁶⁶⁾

원래 서한두기 통물은 이중으로 담을 쌓았는데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1.5m 정도 높이로 겹담형식으로 성처럼 튼실하게 쌓았다.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와도 담을 넘어 들어올 정도는 아니었고 들어온 바닷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멍도 만들었다. 여기서도 먹는 물통과 빨래와 목욕하는 물통이 칸으로 나뉘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서한두기에서 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가다보면 다끄네포구가 나타난다. 다끄네포구는 제주공항 개발로 인해 지금은 사라진 마을 다끄네(수근동)의 중요한 포구였다. 포구 주위에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했던 샘물들이 여러 군데 솟아났는데 그 중 동새미라는 바위틈에서 솟아나는 2개의 샘물을 중심으로 다끄네 마을이 생겼다고 한다.⁶⁷⁾ 다끄네는 공항 확장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이주해버려 사실상 사라진 마을이 되었지만 다끄네 주민들이 애용했던 ‘다끄네물통’은 여전히 남아 있어 과거 주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64) 김충식(남), 1934년생, 용담동.

65) 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pp.134-135.

66) 오영수(남), 1936년생, 용담동.

67) 해안도로에 세워진 다끄네물 안내판에서 인용.



사진 6] 2009년 다끄네물



사진 7] 2014년 다끄네물

난 빨래허곡 물만 질어당(길어다가) 먹은 거 밖에 몰라. 우리 어릴 때는 이 물통이 완전 쓸모 있고 좋아 났주게. 어느 날 갑자기 물통이 저렇게 바뀐거라. 옛날 그 물통이 아니주게. 떠당 먹는 물, 빨래도 허곡, 저긴 상추 같은 거 씻는 물이었주게. 하난 이렇게 따로 되고 하난 요쪽에 물통 있고, 여기는 허벅으로 질어당 먹는 물이고...⁶⁸⁾

다끄네물통은 다른 곳의 물통처럼 식수용과 채소 씻는 곳과 빨래하는 곳으로 칸이 나뉘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개의 물통이 붙어 있는 모양으로 변해버렸다. 과거의 물통 구조는 물 흐름을 따라 상류에서 하류방향으로 세 칸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독립되게 물길을 나누어서 세 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물통 또한 여성들이 사용한 물통이었으며 조금 떨어진 곳에 지금은 사라져버린 남성들이 목욕을 했던 물통도 있었다고 한다.

③ 삼양동(셋도리물, 가물개물)

68) 한인순(여), 1954년생, 용담동.



그림 8] 삼양동 : ① 가막작지물 ② 독통물 ③ 셋도리물
④ 가물개물(감수물) ⑤ 새각시물

삼양동에서는 삼양1동 설개에 붙어있는 셋도리물과 삼양2동의 가물개물이 대표적인 식수원이었다. 설개에 있는 셋도리물의 상류쪽 도로 건너편으로는 독통물이 있어서 얼핏보기에는 독통물통에서 솟아난 물이 셋도리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로하부에 셋도리물의 용수지가 있으며 그 수량이 독통물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 독통물은 평소에는 수량이 많지 않다가 셋도리물통이 잠길 정도로 물(해수)이 많이 들었을 때 더불어 수량이 많아진다고 한다.

설개에는 셋도리물과 독통물 외에도 두개의 ‘큰물’이 있다. 하나는 남자 목욕탕으로 쓰이고 다른 하나는 여자 목욕탕 쓰이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볼 때에 여탕이나 남탕은 목욕만을 위한 물통으로 구분되어 있고 여성들이 빨래를 하고 채소를 씻는 등의 생활용수는 아래에 있는 셋도리물을 사용했다. 하지만 본래 여탕으로 쓰고 있는 큰물도 식수로 많이 애용되었던 물통이었다고 한다.

[그럼 칸은 안 갈라졌었네요. 송키 씻는 물 하며 무슨 물이라고 하면서...] 예. 안 헹칩니다. 이래 내려오민 원. 물을 질어갈 때 인척 왕(일찍 와서) 질어 가불민 이제 빨래, 이제 송키(채소) 씻어지고. [그럼 이걸 뭐죠?] 여기서도 송키도 씻고 빨래도 허고. 칸 갈라져나 부난. 그대로만 이렇게 해 노은거. [옛날부터 그럼 저

쪽하고 이쪽으로 물길이 갈라져 있었나요?] 예. 경헌거.⁶⁹⁾

셋도리물은 상류에서부터 물길을 나누어서 사용했다고 한다. 보통 상류에서부터 하류 쪽으로 칸칸이 나뉘어가면서 물 길는 곳과 송키 씻는 곳, 그리고 빨래하는 곳으로 칸을 나누는 반면에 여기서는 애초에 상류 쪽에서부터 물길을 세 곳으로 나누어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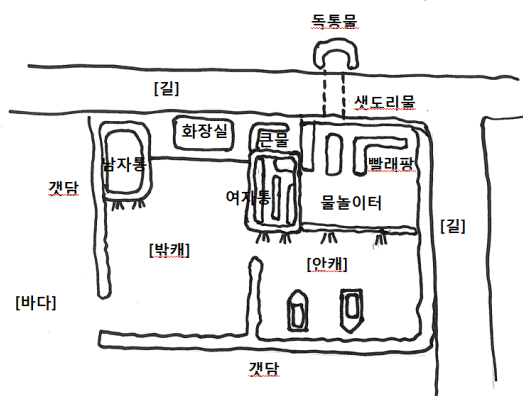


사진 8] 셋도리물에서 빨래하는 모습 그림 9] 현재 삼양동 물통과 성창(포구)

셋도리물 하류는 안개포구와 연결되어 있는데 여름에는 시원한 물놀이를 위해서 찾아오는 가족들이 많아짐에 따라 또 하나의 칸 가름을 추가하여 여름 물놀이를 위해 찾아오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 인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정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라는 점에서 살아있는 민속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삼양동 해안에는 두 곳에 수원지가 만들어져 있다.⁷⁰⁾ 삼양2동의 가물개물과 삼양1동 동카름의 가막작지물은 각각 수원지를 만들면서 사라진 물통이다. 수원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용천수의 수량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삼양은 왕 보난. 오메기⁷¹⁾엔 땅 알로(아래로) 솟는 디가 더 하. 오메기엔 해그네. 이 모살판에서도 알로 이쪽으로 [예. 해수욕장에서 보았어요.] 경헌난 여기

69) 송여숙(여), 1932년생, 삼양동.

70) 삼양2동에 삼양1,2수원지와 삼양1동에 삼양3수원지가 있다.

71) 바닷가 모래밭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곳. : 제주특별자치도, 『중보 제주어사전』, 2009, p.676.

도 그물이 솟아. 우리 빨래 허당 보민 물 싸부렁(싸 버려서) 내려 가분 땀. 여기서도 물 솟아 오르는게 잘도 세계 솟아올라.⁷²⁾

[가막작지란 물통은 지금도 있나요?] 업씨요. 이젠. 지금 포구하면서 싹 없어져 부러어요.⁷³⁾

특히 삼양2동 가물개물은 가뭄이 들어 인근마을에 물이 안 나올 때에도 물이 부족하지 않아 멀리서 물을 길러 왔었다. 그래서인지 가물개물을 메우고 그곳에 수원지를 만들려고 했을 때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여튼 우리가 일곱 번을 갔다와서 시청에. [왜요?] 그 물을 가둬지⁷⁴⁾ 말아주랜. 우리 동네 그냥 자연물로 쓰켄. 경허난 그 대신 시청에서 허는 말이 목욕하고 빨래통 물을 따로 만들어 주켄. 경허난 저 밑에 어디냐 단물식당위에 물을 가뉘 놔주게.....새로 만드난 그 후제 빨래통도 어서저불고, 물 먹는 것도 어서저 불고,.....⁷⁵⁾

물통을 없애고 수원지를 만들 때 이를 막으려고 저항했고 새로운 물통을 따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였던 주민들의 노력은 과거의 공동체사회에서 물통이 갖고 있었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다. 물통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이시설 하나가 사라진다는 의미 이상의 것이다. 과거 물통이 갖고 있었던 사회적 의미의 고찰은 용천수의 이용관행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다.

72) 홍순자(여), 1939년생, 삼양동.

73) 고무길(남), 1936년생, 삼양1동.

74) 물을 메워서 없애버리는 것을 ‘가둔다’ 고 표현하였다.

75) 홍순자(여), 1939년생, 삼양동.

Ⅲ. 용천수의 이용관행

1. 사용 도구

‘(물)허벅’은 물을 길어 운반하고 저장하려는 의지로 만들어진 제주 용기다. 제주인이 선사시대부터 흙으로 그릇을 빚었듯이 허벅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용구가 아니다. 물을 길어서 집으로 운반하려면 바람 속을 뚫고 돌길을 걸어야했기에 생겨난 결과물인 것이다.

허벅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개인마다 짙어질 수 있는 무게가 다르듯 크기가 다양했다. 보통 성인 여자가 지는 것을 ‘물허벅’이라 했고, 어린 여자아이가 지는 허벅은 ‘대바지’라고 불렀다. 밑바닥은 편편하고 입구 부리는 물을 항아리에 비울 때 용이하도록 밖으로 벌어져 있어 손잡이역 할도 하였다. 부리인 구멍은 손을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들어 운반 때 물의 손실을 작게 하였다. 특히 사방이 돌로 만들어진 물통 속에 집어넣어도 쉬이 깨지지 않도록 몸체의 배가 불룩하게 만들어서 둥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



사진 9] 허벅을 지고 물을 나르는 어린이: 泉靖一, 홍성목 역, 『제주도』, 우당도서관, 1999, p.31.



사진 10] 물을 길기 위해 공동수도에서 차를 기다리는 허벅과 양철통: 제주시, 『사진으로 엮는 20세기 제주시』, 2000, p.141.

둥근 허벅을 운반할 때 필요한 용구가 ‘(물)구덕’이다. 둥그런 허벅을

등에 지기에는 불편했으므로 허벅을 넣을 네모난 용구인 물구덕이 필요했고, 물구덕을 등에 질 때는 질빵⁷⁶⁾을 십자로 교차시켜 안정되게 하여 어깨에 댔다. 어렵게 길어 온 물을 물항(항아리)에 부을 때도 허벅을 물구덕에서 들어내지 않고 짚어진 채 허리를 굽혀 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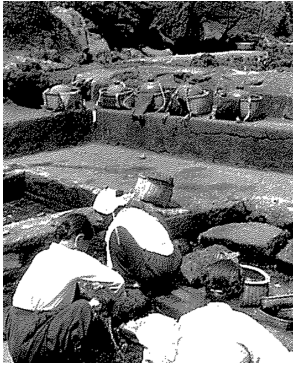


사진 11] 물통에서 빨래 하는 여인과 물팡에 놓인 허벅: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옹기』, 2011, p.25.



사진 12] 물허벅을 물팡에 있는 물구덕에 넣어서 등에 지려고 하는 여인: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옹기』, 2011, p.24.



사진 13] 허벅을 진 채로 물항에 물을 붓는 여인: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옹기』, 2011, p.42.

여성들이 허벅 등짐을 지는 것은 육지와는 사뭇 다른 생소한 풍경이었다. 그것은 타지인이 제주를 방문하고 기록한 옛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임제(林悌, 1549~1587)의 『南溟小乘(1577년)』⁷⁷⁾과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南槎錄』(1602) 속에 수록된 최부(崔溥, 1454-1504)의 「탐라시(耽羅詩)」⁷⁸⁾를 보면 물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은 모두가 여성이라 하였다. 또 통(桶)과 병(瓶)으로 표현한 것이 지금의 허벅과 같이 물을 나르는 용구를 보고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물팡’이란 물통 안이나 부엌 밖 입구 옆에 만든 허벅을 지거나 내려 놓는 구조물(臺)을 말한다. 물을 길어다 놓는 물항이 부엌에 자리하면서

76) 실(絲)로 엮어 땅아서 만든 짐을 짊어지는 줄 : 제주특별자치도, 『증보 제주어사전』, 2009, p.788.

77) 鑿全木爲桶 負而汲水 閭巷之間 負薪水者 皆婦人也. (통나무를 뚫어 통을 만들고 등에 지어 물을 길어온다. 마을 거리에서 땀나무와 물을 등에 지는 사람은 모두 부인이다.) : 제주문화원, 『역주 제주고기문집』, 2007, p.75.

78) 負瓶村婦汲泉去 橫笛堤兒牧馬歸. (물병 진 시골 아낙 샘물을 길어가고 깃대 부는 방축 아이 말을 치고 돌아오네.) : 제주도교육위원회, 『耽羅文獻集』, 신일인쇄사, 1976, p.66.

그 근처에 물팡을 만든 것이다. 대개 두 개의 돌을 세운 후 위에 다시 넓은 돌을 얹어 어른 허리만큼 적당한 높이로 만들었다. 물팡은 실외에 있기 때문에 눈에 띄어서 물허벅이 안보이면 가족 누군가가 물을 길러 나갔음을 알려주기도 한다.

물허벅, 물항, 물구덕, 물팡 등은 제주인들이 지혜로 만들어낸 물 문화를 대변하는 상징물이다. 이런 상징물 하나하나에는 제주인들이 물에 대한 삶의 모습이 녹아 있다. 그러나 상수도 보급으로 물통이 서서히 그 기능을 상실하면서 그에 따른 문화도 사라져버렸다.

2. 이용 공동체

물과 마을공동체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기 마을의 물이 최고로 깨끗하다는 자부심은 자기가 속한 마을이 좋은 마을이라는 증명도 되는 것이다. 수량이 많은 적든 적은 마을사람들은 자기네 마을 안에 솟아나는 물은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맑고 깨끗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통물은 짜지 않습니까?] 통물은 옛날 최고라난 마씨. 다 그 물 먹었고, 아니 짜고. 아, 용수물도 들해⁷⁹⁾ 낫는다. 바닷물이 아명(아무리) 들어 와도 물은 돌아 마씨.⁸⁰⁾

....물이 삼양 1동은 물 들면 짠디 여기 물은 제주시에서 일등 아니짜. 감수물이 라고. 들어도 돌곡, 싸도 돌곡. 물이 그렇게 맛이 좋아.⁸¹⁾

바닷가에 있는 물통이지만 그 물은 달고 맛이 있었다는 것은 그 마을의 자랑거리이다. 용담동 한두기 통물과 삼양동의 감수물은 밀물과 썰물의 영향 없이 늘 단물이 나왔고, 멀리서도 물을 길러왔었다는 것은 물맛이 좋다는 의미를 넘어서 한두기가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79) 제주인들은 담수의 맛이 좋을 때 쓰는 표현으로 ‘달다’ 고 한다.

80) 김충식(남), 1934년생, 용담동.

81) 김애자(여), 1946년생, 삼양동.

같은 마을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는 같은 물통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물을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집에서 가족을 식구(食口)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 마을사람이란 즉 물공동체인 것이다.

고종달전설에서 알 수 있듯이 좋은 물이 솟는 것은 큰 인물이 태어날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믿음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자부심은 자기가 속한 마을이 매우 살기 좋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물이 많이 솟아나는 해안 마을에서는 웬만해서는 이웃마을로 물을 길러 가지 않았다. 자기가 길어오는 물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마을공동체의 범위가 매우 분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쪽에는 동쪽 사람들 허고, 이 반으로 뺀 갈라정 예. 원장물은 서쪽 사람들. [그러면 그 경계는 어디예요?] 경계는 없고 가까운 사람은 그 디.⁸²⁾

수도 어실 때는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물 길러 와십주게. 저 셋마을 사름덜은 원장물에 가지만은 이쪽 사름은 다 이디 물을 먹어.⁸³⁾

웃마을 사람들은 덕지물, 거기 절간에 물 먹지. 그물 먹고 이물은 오지 안허여. 또 원장내물 창창 내리는 물이난 외도 사람들이영 막 고물(가물) 때 빨래 허래 들 와. [외도 사람들이 원장내로?] 응 우리 마을 서낙편의 물. 이젠 이 물이 물 통이여 막 이상케 맨들어부난이주게. 오도롱(이호2동) 사람들은 덕지물.⁸⁴⁾

동카름물이라고 거기 물을 길어다 먹지요. 이쪽 사람들은 다 여기 물을 길어먹었어요.⁸⁵⁾

원장물, 동물, 덕지물 등등의 물통에는 어느 마을사람들이 먹는다는 것이 분명하게 정리되어있다. 그런 상황은 이호동의 동물과 원장물도 마찬가지로 삼양동의 가물개물이나 셋도리물도 마찬가지이다. 이쪽 사람들

82) 김정순(여), 1947년생, 이호동.

83) 김임순(여), 1930년생, 이호동.

84) 강갑인(여), 1923년생, 이호동.

85) 고무길(남), 1936년생, 삼양동.

은 이쪽 물을 먹었다는 막연해 보이는 말이 물공동체가 곧 마을공동체라는 믿음을 반영한다.

[이 물통에 다끄네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도 물 뜨러 와나신가 마씨?] 옛날엔 안 와서. 오로지 다끄네 마을 사람들만.⁸⁶⁾

한정렬에 의하면 다른 마을에서 조차 다끄네로 물을 길러 오지 않았다고 한다. 다끄네물의 수량이 풍부했지만 당시에는 인근에 다른 마을이 없었다. 마을공동체와 물이용공동체가 일치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물공동체가 분명하다는 것은 마을의 영역도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얼핏 주거지공간이 연속되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분명한 경우에는 마을 경계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끄네 마을 경계는 어디쯤 이었나요?] 용두암 지남 처음 만나는 마을. 용담현대아파트 조금 넘어가면 다끄네우다. 옛날에는 얼로까지가 한두기마을이다 얼로까지가 다끄네마을이다 말썽도 있어 나나수다 경계 때문에. 지금가면 영물이런 현디 넘어가면은 '영계낭'이런 해수다. 계낭 이 요기 영물 넘어 돌들 쌓여수게 예, 그 경계 넘어가면 영계낭이라 하고, 저쪽으로 가면 몰머리라 해수다. 몰이란 말이주. 현대아파트 잇는 앞쪽에 그 쪽에 몰머리. 다끄네는 확실한 경계는 모르는다, 몰머리 넘어 강 용담현대아파트 이수게예, 그 서쪽으로 다끄네로 뵈수다.⁸⁷⁾

마을의 경계가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결속과 자부심과 관련이 있다. 자신이 속한 마을이 어디인가는 공동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공동체가 자부심을 만들어내는 데에 물을 같이 이용한다는 점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 마을의 물맛이 가장 좋다는 믿음은 그런 이유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마을사람들이 물을 못 길어가게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다른 마을사람들이 물을 길러오는 것은 우리 마을의 물이 좋음을 인정하면서 증명하는 것이 된다. 때문에 용천수가 풍부한 해안마을에서는 물이 아주 부족한 상황이 아니면 다른 마을로 물을 길러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86) 한정렬(여), 1962년생, 용담동.

87) 김충식(남), 1934년생, 용담동.

다만 중산간 마을의 경우에는 물이 부족한 경우가 허다하여서 용천수가 풍부한 해안마을로 물을 길러 오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물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교류를 보면, 인접한 해안마을끼리는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 반면 오히려 해안마을과 중산간 마을 간에는 물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천을 경계로 동한두기와 서한두기로 나뉜 한두기 경우에도 이름만으로 보면 마치 동·서한두기가 한 마을처럼 교류가 빈번히 있을 법한 이웃마을로 여겨지지만 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서로 전혀 다른 마을이었다. 그런데 동한두기와 서한두기에는 각각 그곳의 물을 이용하는 내지의 이웃마을들이 있었다.

[물통(통물통)에는 어디서부터 물 길러 왔나요?] 용담2동 주민들. 다 글로(거기로) 왔주. 먹돌새기는 아니고 그 알로. 먹돌새기는 딱디 물 먹은거 닳아.⁸⁸⁾

[물통(통물통)에 물 길러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나요?] 아이구, 정뜨르에 있는 친구들이 와났죠. 여기서 물 길어가고 다 했는데, 허벅으로 질어가기도 하고.⁸⁹⁾

동한두기 주민들은 제주시 광양(이호2동)에서까지 물을 길러왔었다는 ‘선반물’을 기억하며 자랑을 아끼지 않는다.

광양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서광양의 사람들이 물 질러 올라고, 시민회관(이도1동) 쪽에 사름덜은 산짓물 먹고, 저기 사람은 여기 선반수 먹언 마씨. [아, 거기서까지 물 길으러 왔었나요?] 예. 구루마(마차) 끌 영 글로왕(거기로 와서) 마씨.⁹⁰⁾

부⁰희도 경 고란계(말하더라). 개네 그쪽에 사난 물이 어성(없어서) 산짓물도 먹고, 선반물도 먹어 냐고랜. 게난 물이 좋으니까 일로 이사 왔고랜 한계.) 옛날엔 광양땅 터는 돈 몇 푼 안주고 여기는 비쌌어요. 이 마을은. 물 좋으니까. 막 나오니까.⁹¹⁾

88) 오영수(남), 1936년생, 용담동.

89) 이상인(남), 1936년생, 용담동.

90) 신경천(남), 1945년생, 용담동.

동한두기 주민들은 선반물은 길어다 먹고, 통물은 서한두기에서만 이용하였다. 동한두기 선반물은 주로 지금의 광양사람들까지 물을 길러 왔었다. 과거 제주성에서 서쪽지역 사람들은 용담동 동한두기의 물을 애용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서한두기 통물은 지금의 용담2동과 용문로터리 북쪽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물을 길어 왔었다고 한다. 선반물과 통물은 이렇게 서로 다른 이용공동체를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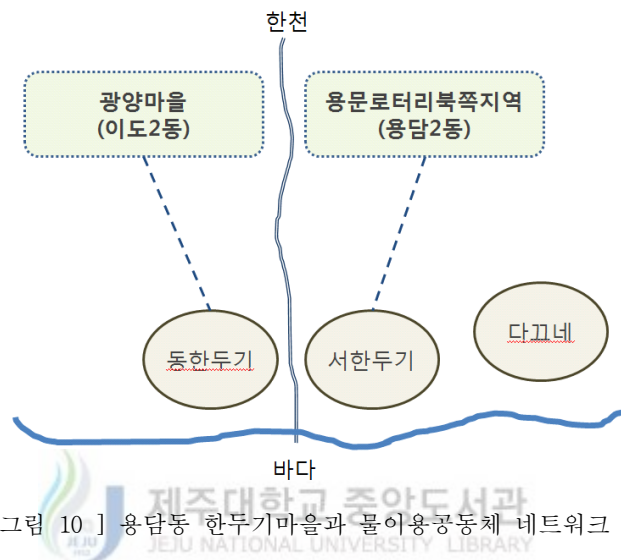


그림 10] 용담동 한두기마을과 물이용공동체 네트워크

삼양1동 동카름의 가막작지물인 경우에도 물의 이용은 동카름 사람에 한정되어 있었고 서카름 사람들은 셋도리물을 이용하였다. 가막작지물 위로 여자물통이 있었는데 대개 식수를 떠가는 것은 여자물통에서였다. 물맛이 가막작지물이 더 좋다고 하면서도 물을 편리하게 뜰 수 있을 만큼의 수량은 아니었다.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량도 중요하지만 적절히 넓은 공간이 필요했다.

웃 마을에서도 연날은(옛날은).....비가 내려서 먹는 물통이라나난 그 물을 못먹을 때는 이 해변까지 와서.[어느 마을사람들이요?] 맨촌, 도련, 도련2동이 맨촌이요.⁹²⁾

비가 내려서 먹는 물통은 봉천수 물통을 말한다. 제주의 중산간에서는 용천수가 많지 않아서 빗물이 고인 봉천수에 식수를 의존하는 경우가 많

91) 김입생(여), 1942년생, 용담동.

92) 고무길(남), 1936년생, 삼양동.

았다. 때문에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을 경우에는 물사정이 매우 어려웠다. 윗마을 도련동 주민들은 가물 때에는 동카름 물을 길러 아침저녁으로 왔다고 한다. 그런데 도련동 주민들이 물을 길러 다녔던 것은 비단 삼양1동 동카름 뿐이 아니었다.

도련 1,2동도 여기 물을 다 질어 가났주. 나 시집 왕 보난. 물장사가 이성계(있더라고). 물통 양편으로 영 돌아매영 지영(저서). 경 한번가른 얼마씩 해어그네. 경 물장사가 이성 왕 보난 술하르방 술하르방 해그네. 그 아저씨가 물 길명 팔 암선계게.....옛날엔 어려우난 될 수 이시은 허벅으로 지어 당 먹었주게. 저당 먹어신디 조금 여유이신 사람들은 그 하르방신디 물 질어다 주랜 행 상 먹고.⁹³⁾

삼양동에서 수량이 많기로는 삼양2동 가물개물이 으뜸이었다고 한다. 도련동에서는 삼양1동 동카름의 물을 길러 샀었고 삼양2동의 가물개물을 길러도 다녔었다. 사치하는 사람을 일러 ‘돈을 물 쓰듯 한다.’ 고 나무라기도 하지만 이미 도련동에서는 삼양동 가물개물을 길러다 팔아서 생계를 잇는 물장수가 있었다. 이렇듯 제주에서는 예전부터 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했던 시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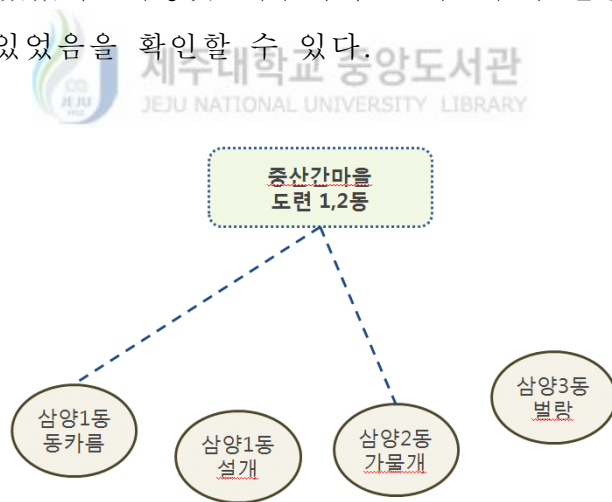


그림 11] 삼양동과 물이용공동체 네트워크

삼양1동 동카름과 삼양2동처럼 도련동에서까지 물을 길러 와서 물공동체를 넓게 형성하고 있었던 곳이 있는 반면에 자기 마을의 물은 자기 마을에서만 소비하는 경우도 있었다. 삼양1동 설개(앞개)의 셋도리물과 삼

93) 홍순자(여), 1939년생, 삼양동.

양3동의 뚝배기물이 그러한 경우였다.

우리는 장숫굴. 여기 앞개(설개)의 물 길어 당 먹어뉘주게.....여기 앞갯물⁹⁴⁾

[그러면 삼양3동 사람이 삼양 2동 물통은 안갑니까?] 영 안 나올 적에는 그땐 허벅에 질어당 항에 뉘던게. 삼양2동물은 알로 물 흐르는 디가 있단 말이어. 지금 우리 수돗물 먹는 거는 다 삼양2동 물 먹는 모양이요. 근데 그물은 항에 길어다 뉘서 10일간 되면 물에서 냄새가 나요. [왜죠?] 건 모르죠. 냄새가나요. 삼양3동 저 뚝배기 그 물은 일 년 되도 냄새가 안나요.....삼양2동물은 막 가물어서 비 안 올 적에 그때는 그 뚝배기물도 잘 안 나와요. 그러면 할수 없이 삼양2동 물을 ... 여자들은 허벅 지어가서 물을 길어다왔어요.⁹⁵⁾

삼양1동의 앞개(설개)와 삼양3동에는 이웃마을에서까지 물을 길러 오지는 않았다. 앞개의 셋도리물이나 큰물은 수량이 풍부했어도 도련동에서의 접근성이 삼양2동이나 1동의 동카름만 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삼양3동의 뚝배기물은 수량이 이웃마을에서 길러 올만큼 풍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자기 마을의 물이 좋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의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수량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삼양1동 동카름물과 가물개물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래서 이웃마을에서 물을 길러오는 것은 마을에서는 자랑이 된다. 마을안의 물을 이웃마을에서 길러 오는 것을 저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 때문일 것이다. 다른 방법은 수질이 매우 좋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삼양3동 사람들은 뚝배기물이 가물 때면 삼양2동의 가물개물을 길어 먹었는데, 그러면서도 가물개물 보다 뚝배기물이 더 좋은 물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것은 삼양3동이 더 살기 좋은 곳이라는 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역시 물이 내포하고 있는 공동체적 가치인 것이다.

그때 물 가물 때 어서. 계난 위에서 물 질러 오주게. [1동 설개물도 ..] 설갠(설개는) 지금도 그 물이 조금 있주. [거기도 가보긴 했나요?] 아니 물 뜨러는 안

94) 김화연(여), 1938년생, 삼양동.

95) 고남훈(남), 1938년생, 삼양동.

가고. 거긴 우린 있당 넘어 가명만 봐그네. 관심이 없주게. 이디 물이 좋아나난. 경헌디 이디 물 어서저부난(없어져버리니까). 예고 1동은 그나마 그 물이라도 이시난. 구진(더러운) 빨래라도 거기서 허고 조키여. 경해영 허는디 이 딴(곳은) 그것이 어시난 후회 난(나).⁹⁶⁾

삼양2동 가물개물이 메워지고 수원지가 된 이후에는 가물개로 물 뜨러 오는 사람이 없어졌다. 삼양1동 설개에 물이 있어도 관심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말에는 삼양2동 주민들이 자기네 마을의 물이 훨씬 좋았던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다. 수원지를 만들면서 가물개물이 없어지고 나서 빨래를 할 수 있는 물통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느끼는 상실감은 단순히 무료로 쓸 수 있는 빨래터가 사라졌다는 의미 그 이상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삼양2동 주민들에게는 마을 입지가 쇠락해졌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물통이 메워진 게 후회스럽다는 흥순자의 독백에서는 그런 의미를 엿볼 수 있다. 그들에게 물통이 중요한 것은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공동체의 중요한 장소라는 점 때문이다.



3. 이용시간

해안에서 솟아나는 물은 항상 해수의 영향을 받게 된다. 지하로 흐르던 물이 해안에 이르러 솟게 되는 것은 해수의 수압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일부 용천수는 밀물이 되어 물이 들었을 때에는 해수에 잠겨서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간간이 있다. 삼양1동 독통물인 경우에 평소에는 물이 잘 나오지 않다가 바닷가에 접한 샛도리물이 밀물에 완전히 잠겨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오히려 물이 잘 솟아났다고 한다.

[동물하고 원장물은 물이 들고 나가는 것이 서로 다른가요?] 예. 여기(원장물)는 조금 늦게 들어오고, 조금 때는 이 물이 안 들주게. 겐디 저기 동물은. 들고 싸고 들고 싸고.⁹⁷⁾

96) 흥순자(여), 1939년생, 삼양동.

97) 김정순(여), 1947년생, 이호동.

[이 물은 썰물 밀물 때 이때만 물 길러 맞춰 갑니까?] 쌀 땀 가곡 들은 안 가곡. 빨래도 싸은 빨래 허래 가곡 아니은 못 가곡.⁹⁸⁾

이호동 용천수의 경우에 원장물은 사리가 아니면 밀물이 들었을 때도 거의 물이 들지 않았지만 동물의 경우에는 밀물 때는 물이 들어서 물 길기가 곤란하였다. 동물에서는 밀물이 되면 물통이 물에 잠겼기 때문에 물 길는 건 고사하고 빨래도 할 수 없었다. 때문에 물이 언제면 들어오는지 살피는 것은 물질할 때 뿐 아니라 생활에서 늘 고려해야 하는 문제였다. 마치 물이 들고 나는 시간은 생활에서 바이오리듬처럼 늘 규칙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대개 해안용천수는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았다. 때문에 용천수에서 물을 길는 것은 항상 물때를 의식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는 다끄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물통에서 물을 길는 것은 시간과의 다툼이었다.

[물의 간조와 만조 시기를 잘 알아야 하겠네요?] 그치. 간조는 언제냐 하면 여섯물부터 아홉물까지 간조고, 만조는 조금이라고 얘기하지. [그것은 누가 가르쳐줍니까?] 아니 옛날 어른들은 달력 어서도 물짜⁹⁹⁾를 다 알던데. [어떻게 알아요?] 날짜 돌아가는 걸로, 음력으로 날짜를 방 손 영영 짚었그네 ‘아 오늘은 일곱물인게 여덟물인게’.....바닷물하고 산물이 섞어정 우리가 빨래를 허래 가면 거품이 안 나. 빨래를 하면 물이 부영해. 그러니까 물때를 맞춰가지고.¹⁰⁰⁾

그 당시 사람들은 바닷물과 민물의 차이를 피부로 이해하고 있었다. 물때를 보고 물의 성질에 맞추어 빨래를 하는 것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가는 해양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의 한 형태였다.

98) 김입순(여), 1930년생, 이호동.

99) 날짜에 따른 조수간만을 일컬음 : 제주특별자치도, 『증보 제주어사전』, 2009, p.392.

100) 한정렬(여), 1962년생, 용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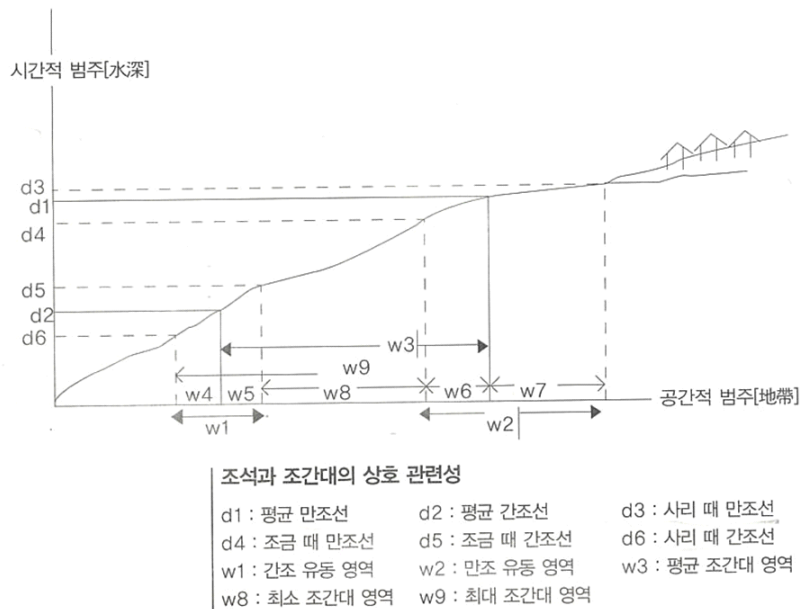


그림 12] 시간 변화에 따른 조간대의 수위변화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
주강현, 『돌살』, 도서출판들녘, 2006, P.41 재인용.

제주 용천수가 해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맛에는 약간 짠 맛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특성은 고문헌에도 등장하는데, 조선 시대 제주목사 이형상이 기록한 『南宦博物』(1704)에도 보면 알 수 있다.

기타 샘(泉)-섬에는 모두 물맛이 좋은 샘이 없다. 백성들은 10리 안에서 떠다 마실 수 있으면 가까운 샘으로 여긴다. 멀리 있는 샘은 혹은 4~50리에 이른다. 물맛은 짜서 참고 마실 수 없으나 이 지방사람들은 익어서 괴로움을 알지 못한다. 외지사람들은 이를 마시면 곧 번번이 구토하고 헛구역질을 하며 병이 난다.¹⁰¹⁾

해안용천수를 짜다고 여기는 것이 타지인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강감인은 중산간마을(도평동)에서 이호동으로 시집왔을 당시에 물맛이 고향이었던 중산간과는 달리 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은 자기네 물이 최고라고 하거든요, 할머니는 어디 물맛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물은 들고 싸고 할 때 호꿈(조금), 우리 윗드리(도평)에서 먹어낸 생각으론 이 물이 쪼끔 짜. [아, 윗동네에서 살았었으니까 짜구나..하는 느

101) ...其他若泉 島內俱無甘泉 人民汲於十里之內則爲近泉 遠或至四五十里 而味鹹不忍飲 土着習不知苦 外人飲之則輒嘔噦生病 : 김봉옥 편역, 제주문화방송주식회사, 『續耽羅錄』, 경신인쇄사, 1999, p.444 ; 이형상 저, 오창명 역, 『남환박물』, 푸른역사, 2009, p.64.

낌이요?] 응. 원장내물은 안차(짜) 찰찰 노려. 이디 물도 비나 작작 노려 나면은 안 짜. 막 고물앙 물이 호끔 붓뜨민 흐끔 짜. 죽장(계속) 먹는 사람은 차(짜)고 싱거운 거 잘 몰라.. [시집 금방 온 때엔 찌어요?] 곧 온 때엔 물 든 때엔 모른다 물 영 고물아가민, 물 곧 싸고 흘 때엔 호끔 차(짜)베어. 경허당 죽장 먹어가 난 심상허여.¹⁰²⁾

타지인이 보기에는 짜다고 하였을지 모르지만 제주인에게는 귀하고 소중한 물이었다. 그렇다고 해안에 있는 모든 물통이 해수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 용담동 서한두기 통물은 이러한 간조와 만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기는 밀물 때도 물을 계속 길어 담을 수 있나요?] 예.....칸이 다 돼 있어서, 물이 들어와도,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¹⁰³⁾

[이 통물은 언제 뜨러 갑니까?] 물이 들 때나 썰 때나 그 물은 언제나 먹을 수 이서났주마씨. 썰물 때나 밀물 때나 언제나 먹을 수 이서주게. 머구냥물도 그렇게 해 나고. 머구냥물은 바닷 쪽에 이시니까 조금 덜 먹어서.¹⁰⁴⁾

서한두기 통물이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통물 위치가 바닷가에서 조금 멀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통물 형태가 일반적인 물통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첫째는 통물 바닥의 위치가 기본적으로 하천 바닥보다 상당히 높았다. 둘째는 물통 울타리의 구조가 일반적인 물통과는 달리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서한두기 통물의 옛 사진을 보면 물통 담장은 위로 배를 묶을 수 있게 갯담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정도로 두께가 있음 알 수 있다. 갯담에 배를 매기 위해서는 담 위로 사람이 걸어 다니기 위한 길을 만들어져야 하며 물통 담장의 윗면이 그 정도의 폭을 유지한다는 것은 담장이 매우 두터웠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물통 출입은 위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듯이 하여 옆으로 터진 입구가 없다는 점도 쉬 바닷물이 들어올 수 없는 견고한 구조였다. 한천 하류에 있으면서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서한두기 통물은 상당히 이용하기에 편리한 물이었다.

102) 강갑인(여), 1923년생, 이호동.

103) 이상인(남), 1936년생, 용담동.

104) 김충식(남), 1934년생, 용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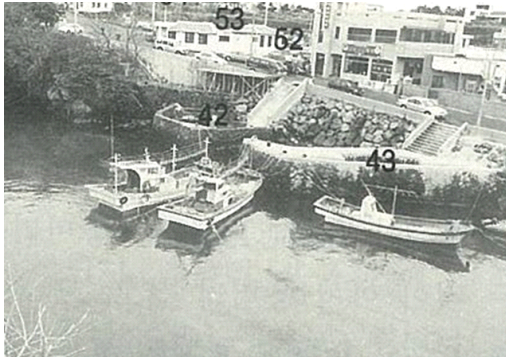


사진 14] 통물(42번)과 머구낭물(43)의 옛모습: 『용담동지』, p.158. 사진 15] 현재 통물

물때에 맞춰 물을 길러 가야한다는 인식은 삼양동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물때가 조금일 때가 물을 길기가 가장 편리한 시기였으며 사리일 때에는 아침과 저녁 시간에만 물을 길 수 있었다.

[밀물,썰물 때는 물 길러가요?]썰물 들 때에는 길어다 안가자나요. 길어다 향아리에 놓지. [밀물 때는 물통이 잠겨버렸어요?]그렇지 완전히 잠겨부렸지. 여기도(셋도리물) 여까지 올라 오는다. [못먹어요?] 못먹어. 집에 향아리에 다 놓고. 부서(부어)논거 먹자나. [아, 그러면 물때를 맞추어가지고 물뜨러 다녀야겠어요.] 그럼. 아침으로. [저녁엔 안 와요?] 저녁 밤에도 조금 물 들어 갈때는 없는 사람들은 오고... 105)

물 길어갈 때는 물때 맞춰사. [그건 어떻게 알아요?] 아침에 인척(일찍) 왕(와서). 물 박세기로 질어가기도 허고. 물 뺏든 때(줄어든 때). 요정도 된 때는 발에 안 강 이신(있을) 때는 이런 때 굽이 바서. 허벅 담가서 허벅으로 지영(저서) 가고.106)

105) 변말자(여), 1940년생, 삼양동.

106) 송여숙(여), 1932년생, 삼양동.

음력	물때	작업	음력	물때	작업	음력	물때	작업	음력	물때	작업	음력	물때	작업
1	어둡물	-	7	아끈죄기	2일	13	다섯물	8일	19	열한물	-	25	두물	13일
2	아홉물	-	8	한죄기	3일	14	여섯물	-	20	열두물	-	26	서물	14일
3	열물	-	9	흔물	4일	15	일곱물	-	21	막물	9일	27	너물	15일
4	열한물	-	10	두물	5일	16	어둡물	-	22	아끈죄기	10일	28	다섯물	16일
5	어두물	-	11	서물	6일	17	아홉물	-	23	한죄기	11일	29	여섯물	-
6	막물	1일	12	너물	7일	18	열물	-	24	흔물	12일	30	일곱물	-

표 1] 물때표, 음영이 있는 칸이 해녀가 작업할 수 있는 날이며, 30일중에 16일이 작업할 수 있는 날이다 : 안미정, 『제주잠수의 바다밭』, 보고사, 2008, p.120 인용.

물때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제주인들에게 있어서는 여성만의 상식은 아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남성들에게도 물때는 중요한 생활 상식이었다.

바닷물이 올라올 때 쌀 때가 있지요. 사리때 조금 때가 있는데, 조금에는 물이 얼마 안 드니까 물이 계속 먹어집니다.¹⁰⁷⁾

하지만 구체적인 물에 대한 경험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다. 어차피 제주여성들에게 낮 시간에 물을 뜨러 가는 것은 일상에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리가 되어서도 아침과 저녁시간에는 물을 뜰 수가 있었다. 조금에는 물을 길기가 편해서 허벅을 담가서 뜰 수 있고 사리에는 물이 적어서 바가지로 떠 놓아야 하는 차이는 있었을 것이다.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물때를 보기도 하였지만 물을 길러 가는 시간 차이는 거의 없었다. 어차피 물을 길 수 있는 시간은 아침시간이나 저녁시간이 되어서 가능하였다.

[빨래나 물 뜨는 시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척인(아침엔) 발디 가젠 허민 밤이, 아척인 아이들 학교 가알거난. 아척인 밥행 먹곡, 아이덜 학교에 보내곡 해똥 혼저 발디 가젠허민 허난 물싸는 기회 뵈당 자당이라도(누웠다가 잠들었다가라도) 물 싸민 다 정 나갔지. [지금 시간이라고 하면 8.9시 정도 인가요?] 보통 10,11시 되어서 방에 오랑 앉았지. 물 낮이 쌀 때 시곡(있고), 저물어 갈 때 시곡, 저녁할 때 발디 강 오랑 뵈 물이 들어시민... [그러면 낮엔 물통에 갈 일이 없었겠네요?] 낮엔 별로 여자들이 한걸지게(한가하게) 물에 왕 앓을 저를

107) 고무길(남), 1936년생, 삼양동.

이(겨를이) 이서게. 이젠 앓양 돈만 주민 쓸도 탁탁 앓다 주곡, 반찬도 앓당 주곡, 벨거 해어도 그땐 이녁냥으로 노력해야 먹엉 살 때이니까.¹⁰⁸⁾

[빨래 같은 것도 밤에 와서 했는가요?] 밤엔 어둑 왕(어두워서) 못허주. 빨래 대목 받디 강 오랑 저녁이. 밤엔 어둑왕 못허지. 송키 곶은 건 아척이 새벽에 밥 궤와(끓여) 똥. 보리쌀 궤와 똥 송키 곶은 거 해왔지. [아침 새벽엔 송키(채소) 씻으러 가고, 저녁에는 빨래하고, 오밤중에는 물 뜨러 가고하는 거군요. 낮에 아무도 없을 때에 남자들이 얼굴이나 씻는 정도이고..] 옛날엔 여자들이 한 걸히 살지를 못했주. 이녁(자기) 밧 어성 용시(농사) 못헌 사름덜은 놈이 일 허 쟁허난. 우리 검질(김) 메 드라, 우리거 해드라 허민 거기 가젠 허민. 호솔이라도 벌어서 아기덜 요 보리쌀이라도 사당 맥일거니까. 이제들은 아명 어렵텐해도 전화만하면 찰찰 갖다주난.¹⁰⁹⁾

과거 제주 여성의 노동현장은 상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물때도 물때지만 낮에 물통에 다니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사치 같이 생각하였다. 낮 시간에는 물통이 물에 잠겨 있는 경우도 많거니와 물이 들지 않았어도 물통에 다닐 수가 없었다. 바쁜 일상은 제주 여성이 물길러 낮에 물통에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물통에 드나들 수 있는 시간은 아침과 저녁시간을 주로 이용하였다.

아침시간에는 아침 식사준비와 일 나갈 준비를 하느라고 물을 뜨러 다니기에는 시간이 부족치 않았다. 물항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물통에 한번 다녀서 되는 일이 아니라 수번을 왕복해야하는 일이었다. 물을 뜨는 일은 모든 일상이 끝나고 밤이 어두어진 때가 돼서야 나설 수 있는 일이었다.

아침에는 주로 식사준비를 위한 채소를 씻는 정도에서 물통이 이용되었다. 하루일과가 끝난 저녁시간이 되면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빨래와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해야 했다. 일과가 끝난 저녁시간에는 빨래하러 오는 여성들로 인해서 물통이 북새통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러다보면 정작 마실 물을 뜰 수 있는 시간은 밤 시간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지금의 시간 개념으로 말하자면 오전 8시경에는 송키(채소) 씻는 일들이 주로

108) 강갑인(여), 1923년생, 이호동.

109) 강갑인(여), 1923년생, 이호동.

행해졌고, 오후 5-6시경에 어두워지기 전에 빨래를 하고 물도 길고 하였다. 간혹 그 시간에 물을 길지 못하였을 때는 10시가 되어서 물을 길러 물통을 찾아오기도 하였다.

제주여성들이 근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용천수가 갖고 있는 이러한 속성이 또 한 몫을 한다. 바쁜 일상 속에서 물이 들고 나는 시간까지 고려하다보면 물통에서의 불일을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고 하루에 두 세 번은 꼭 들러야 하는 공공장소가 되었다. 하지만 그 공공장소라는 것이 팽나무 아래 쉽터처럼 한가하게 이웃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 물이 들기 전에, 그리고 일을 나서기 전에 짧은 시간에 물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기 보다는 노동에 집중해야 하는 산업현장과 같은 곳이었다. 낮 시간에 볼 수 있는 한가하고 여유로운 물통의 전경은 그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

고문헌에서 제주의 물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물때에 맞추어 물을 길러 다니는 이런 풍경을 보고 말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정작 해안마을 사람들은 물이 부족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물때를 따져가면서 새벽같이 허벅을 지고 다녔던 중산간 이웃보다는 해안마을 사람들은 물 좋은 마을에서 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었다.

4. 이용관행

물통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대개 네 가지로 축약된다. 첫 번째는 식수를 길어가는 일이다. 이는 가장 깨끗한 물을 얻어야 하므로 물이 솟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송키, 즉 채소를 씻는 일이다. 이 역시 식재료를 씻는 일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요구된다. 물통에서 떠가는 물은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했지만 그때는 물을 물쓰듯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빨래를 하거나 송키를 씻는 일은 물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물통에 들고 와서 흐르는 물을 이용했다.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빨래하는 일이다. 빨래도 깨끗한 빨래일수록 물이 솟는 지점에서 가까운 곳에서 빨았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물통은 세 칸 정도로 칸을 나누는 경우가 많았다.

옛날에도 세멘만 안했주, 돌담으로 다완. 이건 먹는 물, 이건 송키 씻는 물, 빨래허는디,... 빙 허게 멀리 예와그네. 저 물을 예와 낫주게. 그 훑은 돌로 그 옛날에. 하르방 할망들이. 예우난 그것이 물인가 허연.¹¹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몸을 씻는 일이었다. 물통에서 몸을 씻는 것은 알몸으로 하는 지금의 목욕과는 다른 형태였다. 더욱이 생활용수를 이용하는 곳에서의 몸씻기는 그리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림 13] 여자물통의 기본 구성



1) 물 길기

[먹는 물은 통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통. 물 들땀 허벅 동가(담귀) 낫기게. 물이 그냥 막 팡팡 내려. 갱 물쌀 땀 허곡. 물들어 불민 못 먹어.¹¹¹⁾

흘러내리게끔 해그네. 이거는 먹는 물 허고, 송키들 배추들 씻는 거영 허여. 빨래터 영허고.. 세 개로 나뉘정. 통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처음에 옛날에는 돌맹이로 이렇게 하고, 경계가 갈라져 이서서.¹¹²⁾

원장물과 동물은 기본적으로 기능에 따라 칸이 세 개로 나뉘어져 있었다. 물통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물이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물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일단 물은 솟고 나면 발원지에서 멀어 질

110) 김임순(여), 1930년생, 이호동.

111) 강갑인(여), 1923년생, 이호동.

112) 김정순(여), 1947년생, 이호동.

수록 그 청결함은 떨어진다고 믿게 된다. 때문에 빨래를 윗물에서 하는 것은 금기시 될 수 밖에 없고 물을 걷는 최초의 물통에서 식수를 걷는 이외의 어떤 행위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물통은 송키 씻는 칸과 빨래하는 칸을 나누기도 하였다. 대개 물 흐름이 느린 중산간의 물통들은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해안에 있는 물통은 그렇게 칸이 나뉘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것은 물의 양이 많고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굳이 기능별로 저수를 하여 칸을 구분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저 곳은 빨래일수록 아래에서 빨다는 기준만 지키면 그만이었다.

삼양1동 셋도리물통은 물줄기를 여러 개의 칸으로 나누었지만 그것은 그런 곳은 빨래와 고운 빨래를 구분하기 위해서 칸을 나눈 것이 아니다. 용천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물줄기를 나누어서 칸을 만든 것이다.

거기서도 새각시물이라고 거기서도 물 길어먹고. 거기는 여자용. 거기는 남잔 못가요. 거긴 여자들만 물 길어먹고 빨래 허니까. 썰 위에는 물통 있어요. 거기 는 물 길어먹고, 밑에는 빨래 허고 또 목욕도 밑에서.¹¹³⁾

삼양3동 새각시물에도 물 길어 먹는 곳과 빨래하는 곳이 구분되어 있었다. 대개 이름 있는 물통에는 식수를 길 수 있는 통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통은 언제나 물이 솟아나는 바로 그 지점에 있었으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가은 허벅 줄주런히 해그네. 물이 깊으난 허벅으로 헨 풍풍풍풍 해그네. [바가지로 뜬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냥 허벅으로. 풍풍풍 들어 강 고드그민(가득하면) 들어 메영 구덕더래 낵 정 왔주게. 바가지로 허지 아니. 물통이 잘도 커낵주 게.¹¹⁴⁾

물을 걷는 방법은 통상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물이 깊을 때는 허벅을 물에 담가서 통째로 길어내는 방법이 있고 물이 깊지 않을 때는 바가지로

113) 고남훈(남), 1938년생, 삼양동.

114) 홍순자(여), 1939년생, 삼양동.

뜨고는 하였다. 삼양2동 가물개물의 경우에는 항상 물이 깊었기 때문에 바가지로 물을 뜰 일이 없었다고 한다.

허벅으로 그냥 질어당 먹어놔주게. 박세기(바가지)로 떠냥. 그디 통이 요마니 허게시리 에와네 물을 먹으난. 그곳에서 물 바가수(양동이)러 떠다먹고, 허벅으로도 질어당 먹고. [허벅 주둥이가 조그만데 월로 물을 길으나요?] 박세기(바가지)로, 그냥 아랫니 박세기나 웃니 박세기나 조팍 같은 것도 아저 강 영행 질은 게.¹¹⁵⁾

물을 길어가는 것은 허벅을 사용하였는데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물통은 조금 작게 만들어서 물이 고여 있을 수 있도록 하였다. 허벅은 주둥이가 작아서 물을 길기 위해서는 바가지를 사용해야 했다. 물을 뜨기 위한 바가지는 각자 들고 갔다고 한다.

[물은 어떻게 길었나요?] 이게 구덕이고 이게 향아리면 버집 같은 걸로 향아리 확 시쳐뒀이네 향아릴 물통에 담아 물이 팔락팔락 들어 오주게 그러면 주둥이에 손 담양 일렁 물기 싹 닦양 구덕에 넣 정 오곡.¹¹⁶⁾

허벅은 가벼운 양철통이 생긴 이후에도 계속 지고 다녔다. 남자들은 지게모양으로 해서 양철통에 물을 길고 다니기도 했지만 가벼운 양철통을 사용하지 않고 물허벅을 계속 사용하는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물허벅과 구덕은 하나의 세트라고 할 수 있는데 구덕에 들어가 있는 허벅으로 물을 뜰 때에는 물통에 아주 담가서 물이 풍풍 들어가게 한 후에 허벅을 들어내어 구덕에 담았다. 구덕은 항상 물팡 위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허벅 바닥은 흠에 닿을 일이 없었다. 그것은 부엌 앞에 있는 물팡 위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구덕에 담긴 허벅에서 물을 향아리에 담는 방법도 허벅을 진채로 기울여서 물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물을 뜰 때 외에는 구덕에서 허벅이 나올 일이 없었다. 물을 길는 허벅은 단순히 운반하기 위한 용기가 아니라 음식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이었다. 또, 물팡과 같은 허벅만을 올려놓는 독립적인 공간이 있다는 것은 식수를 관리하기 위한 매우 위생적인 방법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115) 김임순(여), 1930년생, 이호동.

116) 한인순(여), 1954년생, 용담동.

물통이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이유는 식수를 얻는 일일 것이다. 식수를 길는 것도 바쁠 때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식수를 길어가는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무거운 허벅을 지고 왕복해야하는 힘든 일이었다.

밭에 갔다 왕 물 싸민이, 물 싸는 시간 짐작허영 밤에 질어오지. [아들은 안 시키나요?] 아니 아들이고 딸이고 물 질어오는 거 아니 시켜봐서. 이녁 냥으로 허지. 이녁 냥으로 활동 할 때에..... 법이 그거로구나 하고 살었지.¹¹⁷⁾

물통이 남자물통과 여자물통으로 구분된 것은 단지 지금의 남탕과 여탕과 같은 성별을 구분하는 개념이 아니었다. 여자들에게 부과된 부역을 남자들이 관여하지 않기 위함이기도 했다. 그게 법인 줄 알았다는 강갑인씨의 이야기는 물과 관련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호동 동물통이 여자물통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제주의 모든 물통이 규모가 있게 잘 만들어진 곳은 반드시 여자물통이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즉, 물 길기, 빨래하기, 송키 씻기는 여성들에게 부과된 부역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린 식계(제사) 하난(많으니까) 맨날 길어서. 식계 한 단 물항도 큰 거이. 물 여섯 허벅 일곱 허벅 드는 항을 놓고, 부역에 놓고. 식계 어신 사람은 시(세) 허벅 두 허벅 드는 거 놓지. 응. 우린 식계 하난이. 여섯 허벅 다섯 허벅 드는 거 난. 큰 항 난.... 집에서 세수 허고. 설거지 허고 다 허젠 허민 물 하영 아니 써저게. [빨래만 집에서 안하는 거군요?] 빨래허고 송키 씻으러 가는 거는 물이 하영 드는거노난.¹¹⁸⁾

물 질어당 항에 다 났주. 난 제일 맏이니까 허벅에 물 지고 양쪽에 바카스(양동이) 들었이네 한번에 물 질영 채고(채우고). 또 빨래, 머리 빨래 이영 왕 넣고, 아버지 고기 팔러 가면 팔러 따라 같이 가곡. 또 나무허래 가면 어머니 따라 가고, 또 마중 나강 가져오곡. [물 길을 때 양동이라도 들고 가셨나요?] 난 욕심 씨난(있으니까) 항아리에 한번에 가득일려고(가득하게 하려고). 식구가 많으니까 옛날에는 빨래도 해곡, 물도 질어야 되난 흔꺼번에 물을 채올라고. 몇 번 안행 항아리 고독잖아. 빨래는 제일 팡 앞으로 초지행 빨리 행 왕이네 착착 널영 다 말리곡. 첫째난 내가 다 했주. 보리낭 불 살령 밥도 허곡.¹¹⁹⁾

117) 강갑인(여), 1923년생, 이호동.

118) 강갑인(여), 1923년생, 이호동.

물항 크기는 특히 제사가 많은 집에서는 더욱 커야만 했다. 그만큼 큰 일을 당해서는 많은 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큰집 며느리가 일이 많은 것은 아직도 이어지는 여성들의 삶의 형태이다. 짧은 시간에 물을 다 채우려고 물허벅을 지고도 모자라서 양동이를 양손에 들고 갔었다는 한인순씨의 경우가 일반적인 삶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고 했던 제주여성의 모습이 단지 부지런한 미덕으로만 볼 수는 없다. 물통은 자청비가 문도령에게 버드나무잎을 띄워 마실 물을 건네던¹²⁰⁾ 그런 낭만스런 공간이기보다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 가깝다.

[물 뜨는 것은 여자들의 몫이었네요?] 밧디(밭에) 나강 일 허는 것도 여자들이 주로허주, 남자들도 해긴 해도. 게난 밧디 일하는 것도 남자여자 구별 없이 헛주마는. 집에 일하는 것은 거의 여자들이 허지. 옛날에는 땀감이 나무, 농촌이 아니니까 나무가 없어노니까 이제 교도소 있는 디 들령귀, 거기 위에 가기네 소 나무에 솔잎이 겨울 되면은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게민(그러면) 아침에 가민 오 후 두 세시 되면 한 짐 이만이 행이네 거 진짜 무거워도 여자들이 거 다 정와서마씨. 정 오면은 집에서는 마총 나가는 거라마씨. [누가?] 남자들이 다. 집에 이신 사람이.¹²¹⁾

제주여성의 노역은 단지 물통에서만 그러했던 것은 아니었다. 밧일을 하는 것도 땀나무를 지고 오는 것도 남녀 구분 없이 했던 일이었다.

남자는 허벅은 안 지어마씨. 건데 어깨에 영 해여그네에 앞에 통 허고 뒤에 통 허영 통 두 개 매영 허는 거도 거의 어서서마씨. [물지게요?] 예, 남자덜도 난 거의 안봐바 나수다. 난 이 마을서 나고 이 마을 살아나도 남자들 물지는 건 안 봐나수다.¹²²⁾

간혹 남자들은 물을 길러가지 않느냐는 말에 허벅은 지지 않지만, 간혹 물지게를 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을 수는 있었다. 하지만 그게

119) 한인순(여), 1954년생, 용담동.

120) 권태효, 「우물의 공간적 성격과 상징성 연구」, 『민족문화연구56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p.268.

121) 김충식(남), 1934년생, 용담동.

122) 김충식(남), 1934년생, 용담동.

일반적이지는 않았으며 남자들이 물을 길러 다니는 것은 물장수들이 공동 수도가 생겼을 때의 일이었다. 한두기 통물통에서 남자들이 물허벅을 지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늙은 할망들(할머니들)하고 살아그네, 늙은 할망들 못지게 되면이. 석유통, 강통 그거 시에 가그네 사당(사다가) 영 가운데(가운데는) 낭(나무) 박양 지게(질수 있게) 맹글양(만들어서). 지는 지게 맹글양. 경행 그거 두 개로 물 질어가서.¹²³⁾

간혹 남자들이 물을 길어야 할 경우가 없지는 않았다. 집안 경조사 때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남자들도 동원되어야 했다. 제주시에 월읍 상가리의 ‘도라무깡¹²⁴⁾제(계)’라 하여 남자만으로 구성된 계 모임이 있는데, 마을에 큰일이 생기면 계원, 비계원 상관없이 도라무깡으로 물을 길어다 주었다.¹²⁵⁾ 물을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남자들은 허벅을 사용하지 않았다. 물허벅은 오로지 물을 길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용기로 여성들의 전유물이었다. 허벅 자체에 여자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물 길는 행위가 여성에게 부과된 것이기에 허벅에는 자연스럽게 여성물품이라는 상징이 부과된 것이다. 남자들이 물을 길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되어서도 그들은 여성물품인 이 허벅을 사용하지 않았다. 마치 지게를 연상케 하는 물 나르는 기구를 만들어서 허벅과는 다른 형태를 고집하였음은 특이한 일이다.

2) 빨래 하기

식수로 이용하는 것이 물통이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겠지만 실제로 물통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은 빨래를 하는 일일 것이다.

막 물 창창 내려, 곱게시리, 고운 빨래는 위에서 허고, 구진(더러운) 빨래는 밑에서 허고. 기저기(기저귀) 같은 거.¹²⁶⁾

123) 강갑인(여), 1923년생, 이호동.

124) 드림통의 일본어. 근세의 제주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일본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125)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접.계 문화 조사보고서』, 2010, p.555.

126) 김화연(여), 1938년생, 삼양동.

[여기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 텐데요?] 예. 채소 같은 거는 물 내려가는데서 허고 거기서는 안해. [물 솟아 나오는데서는?] 예.예. 이렇게 내려가는데서... [여자들 .. 기저귀는 어디서 빨아요?] 내려가는 물. 여기서 빨다가 그런 거는 저 알로 내려가 가지고 아래서 빨아.¹²⁷⁾

빨래를 하는 데는 규칙이 있다. 고운빨래는 위에서 하고 굵은 빨래는 밑에서 하는 것이다. 이는 위생관념과도 관계가 있다. 송키를 씻는 것은 빨래로 치면 가장 고운빨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애기기저귀 같은 것이 가장 굵은 빨래일 것이다.

원장물도 안에는 칸 갈라져도 칸이 갈라지긴 갈라졌는데, 그냥 광광하게 내 터져나면, 물이 팡팡 내려와그네 허민, 밖에서도 빨고, 안에서도 빨고. 저렇게 막 머해나진 안해수다.¹²⁸⁾

빨래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물을 많이 필요로 한다. 원장내에서는 평소에는 물통 안에서 빨지만 비가 많이 와서 내가 터졌다고 하면 안에서나 밖에서나 빨랫감을 들고 와서 장소 불문하고 물만 흐르면 빨래를 하곤 하였다. 빨래는 물이 있는 곳이면 물통 안이건 밖이건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원장내 하류에서도 물통과 관계없이 빨래를 하는 여성들로 복적거렸다.

빨래 중에는 살균을 위해서 삶아야 하는 빨래가 있다. 빨래를 삶기 위해서는 큰 솥도 필요하고 불을 피우기 위한 장작도 필요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서답 삶는다’고 하는 데 모든 물통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물통에서는 그런 서답(빨래) 같은 건 안 삶아. 원장내에서는 삶고.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저쪽에 물은 먹도 안 허고, 그자 저건 오도롱 사람들 물로만 취급 해주게.¹²⁹⁾

서답(빨래)을 삶은 것은 동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장내에서는

127) 변말자(여), 1940년생, 삼양동.

128) 김정순(여), 1947년생, 이호동.

129) 강갑인(여), 1923년생, 이호동.



사진 16] 병문내 하류에서 빨래하는 여성: 제주도, 『제주100년』, 현대문화인쇄사, 1996, p.86 인용

이루어졌다. 이호동 동물은 바로 마을에 인접하고 포구와도 바로 붙어있어서 서답을 삶기에 불편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반면에 원장물의 인근은 너른 해안의 작지왓¹³⁰⁾이 있었는데 그런 작지왓은 젖은 빨래를 말리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었다.

자갈이 그디 막 쌓여나수다. 내창이니까. 내 터지멍 내려온 것들이랑 쌀영 거기서 빨래허영 널영(널어서) 웃드리 사름들이랑. 거기서 지금 말하자면 웃드리 사름들. 위에 사름들 내려왕 빨래. 솔 아저왕 삶으곡, 빨래하고 널고, 경행 널영 말리어왕 가난. 작지들 이시난. 우리도 집에 오기 싫으면 솔 아저강 거기서 빨양... 동물은 빨래 삶지 안허지. 여기는 내창이니까. [빨래 삶는 것은 어느 마을 사람까지 왔었나요?] 웃드리 사름들, 신산마을, 이호2동, 옛날엔 오도롱이엔 해났주.¹³¹⁾

원장내 하류의 너른 공터는 빨래를 삶기에 불편함이 없었다. 게다가 작지는 햇볕을 받아 달궈지면 빨래들이 금새 마르기에 좋았다. 빨래를 하기에 좋은 이런 환경들 때문에 중산간 마을에서도 빨래를 하려고 원장내를 찾아오곤 하였다.

3) 몸 씻기

식수와 송키 씻기, 그리고 빨래를 하는 세 가지 기능 이외에도 물통이 갖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 그것은 목욕하는 것이다. 목욕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자물통과 여자물통이 철저히 구분되었다. 이호동 원장내와 동물에서도 목욕은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여성에 한한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그 두 개의 물통은 여자물통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목욕을 하는 것은 지금의 목욕과는 전혀 다른 형태라고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목욕이

130) 자갈밭 : 제주특별자치도, 『증보 제주어사전』, 2009, p.732.

131) 김정순(여), 1947년생, 이호동.

라기보다는 몸 씻기가 적절한 말이다.

[그럼 여자들이 목욕 할 때는 밤에 하나요?] 아니 낮에도 하지. 옛날엔 낮에도 하지. [그 밝은 때 목욕을 어떻게 하지요?] 해 밝으면. 물통은 옴팡하고 질은(길은) 막 높아났지. 높으면 누게 역부로(일부러) 바리지 않으면 못 봐. 옛날에사 무사 여자들 낮에 한걸허게(한가롭게) 목욕하고 해서.. [흘라당 벗고 목욕한건 아니었나 봅니다.] 우치(윗옷) 벗어 등뎡이에 물 놔도랜허민 등뎡이(등)에 물이나 낫주. 발에강 어두광 [윗몸만 씻고 하체는 안 씻나요?] 낮에 밑에 곡, 사람이 한글히 그렇게 목욕허게 앉아서. 물애기(갓난아기)나 돈(데린) 사람 백끼(밖에). 문딱(모두) 발에 들 강 있당. 저물어 강(저물어 가면). 어두광 가민 물통에 꼭 차.¹³²⁾

물통은 여자들 것이었지만 목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일상생활에 쩌들다보면 낮에 목욕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호사였다. 낮에 목욕할 수 있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어두워질 무렵이 되어야 물통에서 빨래도 하고 일부는 몸을 씻기도 하였던 것이다.

여자만 써났지. 이물은 여자들 뽕래 허고 여름 나면 목욕도 허곡허여. 남자들은 일체 안 허여. 세수나 넘어가는 사람은 세수나 오랑 행 가지. 이젠 물통 잘 해 노난 해수욕 온 사람들은 남자 여자 어시 막 담아져. .. 남자가 오질 안허지. 여긴 여자 물통이라고 허연. [남자들도 물 길러는 왔겠지요?] 남자들 물길러 오지 안허여.... [목욕할 때 바가지는 거기에 있나요?] 아니, 이녁냥으로(자기대로) 다 가정가. 옛날 공동 하고 시고 이서나서. 그제 가젠허민 이녁냥으로. 물 찰찰 내려도 목욕 허젠허민 물 지치멍 해야지 물에 앉으면 요만이(무릎정도 높이) 밖에 안허지. 경허민 이녁냥으로 다 바가지 가정 가지게....[어린 아이들도 거기서 목욕 했었나요?] 어린 아기들은 어멍들이 돌양 강(데리고 가서) 목욕시키주.¹³³⁾

물통의 물 깊이는 일반적으로 고작 무릎 정도의 높이밖에 되지 않았다. 지금처럼 물에 풍덩 들어가 몸을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하여 몸을 씻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 것은 물통에서는 즐길 수 없는 호사이다. 일반적으로는 몸을 씻는 다는 것이 바가지를 들고 가서 몸에 물

132) 강갑인(여), 1923년생, 이호동.

133) 강갑인(여), 1923년생, 이호동.

을 치대기는 정도였다. 대개 욕지의 샘터에서 바가지 정도는 공용으로 놓아두는 것과는 달리 바가지마저도 들고 다녔다. 그리고 그것은 옷을 편히 벗고 하는 목욕이 아니었다. 빨래와 식수를 길는 물통 옆에서 몸을 씻는 것은 부가적인 행위에 불과했다.

그대로 그자 세멘만 하고 돌링(둘러서). 저기서는 목욕도 해요. 우리도. 밭에 갔당 오민. 이제도 허는 사람은 험니다.¹³⁴⁾

또 요쪽(여자물통 말고)에도 물이 이서났어요. 이 물이랑 그자 같은 폰데, 거기도 말입니다. 영 해서. 먹지는 않지마는 여자들이 가서 목욕도 하고예. 이쪽에는 위에서 보는데가 아주 뻥해부니까 못허고, 요쪽에서 목욕을 많이 했어요. ... 요기 바위가 있어서 가려져서... 여자는 엉덕으로 요렇게 가려졌어요. 여기가.¹³⁵⁾

삼양1동 셋도리물 아래 지경의 큰물은 주로 남자와 여자의 목욕통으로 사용되었다. 통상 제주의 물통에서는 목욕을 한다고 하여도 여성공간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의 물 길기와 빨래 등의 행위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유롭게 목욕을 할 수 있는 목욕시설로 편리한 곳은 아니다. 그래서 대개는 목욕을 하더라도 옷을 입은 채로 몸을 부분적으로 씻는 정도의 행태가 일반적이다.

지금 동한두기의 선반물은 복개되어서 사라지고 흔적을 볼 수 없고 그 위치에 표석만 세워져 있다. 마을 주민들은 선반물이 줄어들자 가막수물을 이용했다. 용담수원지가 설치되면서 가막수 물통도 사라지게 되자 못내 아쉬웠는지 대신 그 아래에 새로이 ‘가막수’ 목욕탕을 만들었다. 주민 신경천씨의 말에 의하면 용담수원지를 만들 때 그 물을 파이프를 끌어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물통이란 것이다.

...[지금도 가막수 물은 많이 나오는가요?] 지금은 용담수원지 있잖습니까 예. 수원지 만들면서 우리마을 물을 죽여부니까 호수¹³⁶⁾를 물어갖고 물통을 만든 겁니다. 시에 부탁 해달라고 해서. [숫아나는 물이 아닌가요?] 예. 아니우다. 수원

134) 송여숙(여), 1932년생, 삼양동.

135) 고무길(남), 1936년생, 삼양동.

136) 급수용 파이프를 일컬음.

지에서 내려오는 물이우다. [진짜 용천수는 아니네요?] 어쨌든 용천수 물은 맞는데 호수로 뽕양 올라온 거...¹³⁷⁾

가막수물은 예전같이 자연적으로 샘솟는 물통이 아닌 것이다. 지금은 남자와 여자가 시간을 구분하여 이용하고 있는 목욕탕일 뿐이다. 가막수물통은 물통의 여러 기능 중에 몸을 씻는 곳이라는 기능만 부각시킨 것이다.



사진 17] 동한두기물통이 사라진 후 만 든 가막수물통.



사진 18] 선반물 자리에 세워져 있었던 표석.

하지만 물통에서 몸을 씻는 것은 부가적인 기능이다. 물통에서 여성들의 삶은 빨래를 하고 물을 길는 것이 더 주된 일이었다. 따뜻한 온수가 펄펄 쏟아지는 공중목욕탕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상수도가 충분히 공급된 시기였다. 그 당시 목욕탕에서 주인 몰래 따뜻한 물에 빨래를 하는 여성들이 많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빨래금지라는 표지를 붙여놓은 곳도 상당했었다. 이 또한 물통이 여성들의 삶과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한다.

[목욕은 어디에서 했나요?] 용수에서 그냥 했는데, 남자는. 여자들은 거기 물 먹는 쪽이 있고, 빨래하는 쪽이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구분 돼 있었지. [여자들은 목욕을 어디에서 했나요?] 물통에서 허긴 했는데, 밑에 빨래하는 데에서 했을꺼예요.¹³⁸⁾

[통물은 남자들이 들어가서 사용하기도 했나요?] 아, 통물은 목욕은 안 하고마

137) 신경천(남), 1945년생, 용담동.

138) 이상인(남), 1936년생, 용담동.

씨. 목욕은 머구낭물이랜 헨디 허고예 요 영물에서 했주. 이 마을는 바닷가라나 서 물이 막 용천수라 해가지고 물이 막 나왔주게 언제나. 바닷가에서 물 싸민 돌구멍에서 물이 활활활 나왔주. 이제는 위에서 지하수 다 뽑아 써부니까 안 나.¹³⁹⁾

여자들이 빨래 허멍, 여자들이 목욕 많이 했주게. 남자들은 저 용수에서 허고. 용수라고 했다 맞아.¹⁴⁰⁾

용담동 한두기에서 통물은 여성들만의 공간이었고 남자들은 머구낭물이나 영물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남자들은 그 곳 보다는 용수(용소)가 편하게 몸을 씻을 수 있는 곳이었다. 물론 몸을 씻는다는 의미는 지금처럼 목욕을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남자들은 그디 못 써십주, 이 위에 물통이신 위에 남자물통이엔 행 돌로 영 돌로 다완 해 나수다. ... 남자 목욕은 안 해난. 동물이고 원장물이고, 빨래허래 여자들 수시로 다녀부난 남자들 목욕은 못허지. [여자들은 목욕 해었잖아요?] 여자들은 게 빨래 허래 갔다가도 허고.¹⁴¹⁾

옛날은 남자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지게. 한쪽에는 물 길어다 먹고. 한쪽에는 또 밀으론 빨래. 남자는 거기 가서 목욕 허여지나. [그래도 남자도 물 뜨러는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허이, 그 당시에는 물 허벽으로.. 그땐 해낮에 여자들 어실 때에는 거기가 손발도 씻고 헨디. [거의 여자들이 주로 이용 했군요.] 예. [여자들이 거기서 목욕도 합니까?] 목욕은 길 좁은데다 물통 이서나나. 그 물통 보다 위에가 길 되지. 게난 목욕 해지나. 밤에 허민허지. 밤에 밧에 갔다 왕.¹⁴²⁾

이호동의 동물이나 원장물 역시 여성들 전용 공간이었다. 남자들이 몸을 씻는 곳은 물통이라기보다는 몸을 씻는 장소가 있었을 뿐이다. 동물 역시 여성 전용공간이었다. 하지만 몸을 씻는 것은 밤 시간을 이용해야 했다. 동물이 길거리에 노출되어있었던 탓도 있었지만 당시 여성들은 낮에는 밧일과 살림을 챙기느라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웠다. 제

139) 김충식(남), 1934년생, 용담동.

140) 오영수(남), 1936년생, 용담동.

141) 김정순(여), 1947년생, 이호동.

142) 장남옥(남), 1937년생, 이호동.

주박물지인 『南宦博物』(李衡祥,1704)에는 여성이 샘에서 물을 길어 오는 일을 무거운 부역으로까지 기록하고 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물통은 지금 생각처럼 한가하게 목욕하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던 것이다.¹⁴³⁾

옛날에는 나이들 한 스물 넘어 가면은 열일곱, 열여덟 나면은 옷들 입영 목욕허지.... 그대로 또 뺏지 같은 거 입영 목욕허고. 남자들은 ‘훈도시’라 해가지고 천으로 해기네 남자들은 영행이네(가랑이부분을 가리키며) 가리고 우에 영 가리고 지금 수영복이 나오기 전에. 왜정시대는 수영복이라는 것이 엇주마씨. 자기대로 수건 같은 거 해기네 앞에 영허고 허리 영 묶영 가령... [옛날에는 지금의 목욕탕처럼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한 것이 아니라 가릴 부분은 가린 상태로 목욕을 했다는 것이네요?] 예.¹⁴⁴⁾

용담동의 머구낭물에서 목욕을 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발가벗고 하는 목욕이 아니었다. 그리고 목욕하러 간다는 말조차도 통용되지 않았다. 그때는 주로 ‘몸 감으러 간다’는 것이 물통에서 목욕을 한다는 말이었다. 남자건 여자건 물통에서 몸을 씻는 것은 기본적으로 몸을 가릴 수 있는 옷이나 천을 준비해서 물을 끼얹지는 것이었다.

4) 물통 관리

물통이 생활에서 중요한 장소이고, 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통을 청소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규약이 없다는 것은 의외의 일이 아닐 수 없다.

빨래하는 사람들이 청소는 하지요. 별다르게 붙진 않습니다. 팡이나 좀 붙지. 물이 자꾸 내려부니까. 바다에서 올라 올 때는 물이 이빠이(가득)되서 완전 가려요. 가려졌다가 물이내리면 깨끗허니까 뭐. 만약에 늦(이끼) 고튼거나 돛지(돋지) 딱 거는 없어요.¹⁴⁵⁾

143) ...女役甚重 宦有潛女案 進上霍鯁 皆責於此 旌義大靜 至以寺婢定給牧保 閭閻間汲泉... : 김봉옥 편역, 제주문화방송주식회사, 『續耽羅錄』, 경신인쇄사, 1994. p.456.
이형상 저, 오창명 역, 『남환박물』, 푸른역사, 2009. p.107.

144) 김충식(남), 1934년생, 용담동.

145) 고무길(남), 1936년생, 삼양동.

이제 물통은 여성들의 전유물이라는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 마을에서 청소하거나 남성들이 관리를 도와주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 물통 담이 무너지거나 하면 남자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도 같은데 물통의 담은 매우 튼튼해서 무너지는 일도 거의 없었다. 게다가 해안의 물통은 특별히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졌다. 물이 들면 완전히 잠겼다가 물이 빠지면서 물통에 있었던 웬만한 이물질은 바닷물과 같이 사라졌으니 말이다. 해안용천수를 청소하는 것은 밀물과 썰물인 바닷물이었다.

[물통이 지지분해지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물이 원체 세어노란.... 영행 놔두면 물이 왈칵 들었다가 나갔다 허주게. 항상 영(이렇게) 고여 있는 것이 아니고. 경행 왈칵 들어 왕(와서) 어느 사이 확 허민 알려래 책 차자가부러..¹⁴⁶⁾

이렇게 밀물과 썰물의 영향으로 물통을 달리 청소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돛추렴을 바닷가에서 하면서도 그제 더럽다거나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바다만큼 정화력이 있는 시설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흐르는 물에도 이끼는 끼게 마련이다. 아무리 바닷물이 밀려와 물통을 청소해버린다고 하지만 먹는 물을 담아두는 식수통은 바닷물에 가장 적은 빈도로 잠기는 시설이었다.

[살다가 물에서 냄새가 나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자꾸 청소해서. 물 닦아냥 한 사흘 되가민 물 닦아사 허커라 허은 대 비차락(빗자루)들 가정 오랑 박박 닦아. [어딜 닦는다는 말이죠?] 물통 안내(안애)게. [물통 안에도 닦아요?] 다끄지. 물이 오래가민 늦(이끼) 돌아, 늦. 그런게 안 돌게 자꾸 닦았지. [머칠에 한번씩 닦게 되나요?] 트멍만(틈만) 나면들 닦아. 한 사흘에 한번씩. [물이 내려도 닦았어요?] 닦으민 물이 잘잘 내려 갔지. [대 비자루는 다 가지고 오는 거지요?] 다 가정 오지. [물이 솟아나는 그 안쪽에도 닦는 거군요?] 물이 잘잘 내려가도, 늦 돌앙게. 퍼렁한 늦이 흥알 흥알 돌지.¹⁴⁷⁾

마을사람들이 이녁 먹는 물이난 깨끗하게 쓰난게, 자발적으로.¹⁴⁸⁾

146) 홍순자(여), 1939년생, 삼양동.

147) 강갑인(여), 1923년생, 이호동.

148) 김임순(여), 1930년생, 이호동.

[물통청소는 누가 합니까?] 그자 노는 날은 아무라도 허지. 그저 물 추적 해서
은 물 내려가멍. 비차락(빗자루) 아저강(가져가서) 그자. 누게 차례로 느허라 나
허라 안허메. 옛날은 경 안 해났지.¹⁴⁹⁾

물통의 물은 늘 흐르기 때문에 항상 맑은 상태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흐르는 물이 있는 물통에도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 이끼와 같은 것이 끼게 된다. 때문에 사흘에 한번 정도는 집에서 대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바닥까지 깨끗하게 씻어 내었다고 한다. 그런 청소도 역시 물통을 드나드는 여성들의 일이었고 보통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식구들이 먹을 물인데 물통을 청결하지 않게 놔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때는 누구든지 물통이 더러워져 있으면 자발적으로 청소를 했다. 물론 태풍과 같이 큰 난리를 겪고 난 뒤에는 간혹 마을에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청소를 하기도 하였지만, 그건 일상적인 일은 아니었다.

[물통관리는 누가 했어요?] 마을사람들이 했지. 한두기 사람들이.¹⁵⁰⁾



[청소는 남자들도 했었나요?] 여자들만 헛주게. 남자들은 탕글탕글 놀기만 헛주
게.¹⁵¹⁾

물통을 사용하는 것도 여성들이었지만 관리를 하는데에도 남자들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다. 물통관리를 마을 사람들이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을 사람이라는 것도 마을 여성을 말하는 것이다. 물을 길고 빨래를 하던 여성들의 물통에 남자들이 얼씬도 못했기 때문이다. 물통은 사용하는 것도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도 여성의 몫 이었다.

5) 물부주(물부조)

물이 귀한만큼 갑자기 많은 물이 필요할 때는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게

149) 강갑인(여), 1923년생, 이호동.

150) 이상인(남), 1936년생, 용담동.

151) 한인순(여), 1954년생, 용담동.

한정렬(여), 1962년생, 용담동.

된다. 그 대표적인 일이 잔치와 장례와 같은 큰일을 당해서이다. 이때는 많은 손님을 맞이해야 하고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게 된다. 평소에 사용하던 물항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또한 그 물을 물통에서 모두 나르기에는 힘에 버거울 수밖에 없다. 마을공동체의 중요함은 ‘물부주’라는 관습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잔치날이나 상 날 때는 물이 많이 필요 할텐데요.] 그땐 물이 부주라. 지어다 줘. 이웃이서 막. 아이고 물 질어가사클 허면서 물 질어다줘. 어디 소상 돌아왔 썸 허민 아이고 물 질어가사 할 로구나 허여. 물들 막 지어다줘... 경허민 주인 네가 물 받을 그릇을 다 내어놓지. 도루미깡(드럼통)이영. 경 내노민 다 물 질어다줘. [자기네 허벅으로 지어옵니까?] 응. [그럼 드럼통을 빌려주기도 합니까?] 응 신(있는)사람들은 빌려도 줘. 옛날은 느거 나거 어서 낫지게. 이젠 별 그릇 다 있지만 그때 대로 차롱같은 것 밖에 아니 이섯지. 경허민 우리꺼 갔당 썸 했 주게. 옛날엔 경허멍 살았주게.¹⁵²⁾

[잔치날은 물이 엄청 필요 할텐데. 그땐 어떻게 합니까?] 상 날 때는 옛날에 마을사람들 먼. 지금은 병원에 강 해부난. 상 나도 모르자나. 갠디(그런데) 옛날에 상 나른 마을사람들 모뎀 다 모다들영 물 질어오고. 거기서 떡도 해다주고. 밥도, 밥은 놉 빌어당 밥은 허고. 솔 걸영.¹⁵³⁾

부주(부조)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채무관계를 만드는 행위이다. 개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 많을수록 부주라는 것은 큰 힘을 발휘한다. 옛날식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웃이 힘이 부칠 때 모두들 달려들어 노동력을 제공해준다. 그렇게 제공한 노동력은 내가 힘들 때 다시 제공받게 된다.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게 해준 원동력중 하나가 부주인 것이다. 집안 경조사에서 물을 부주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옛날에 흙으로 집 질 때는 그때도 허벅으로 막 질어당 물..흙 일때(이길때) 질어다주고 해나수게게.¹⁵⁴⁾

초가집은 나무와 흙으로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흙으로

152) 강갑인(여), 1923년생, 이호동.

153) 김화연(여), 1938년생, 삼양동.

154) 김정순(여), 1947년생, 이호동.

벽을 만들려면 새에 물을 부어서 흙반죽을 만들어야 했다. 그 때에도 엄청나게 많은 물이 필요하게 된다. 집을 짓는 것도 당시에는 남성들만이 하는 일이 아니었다. 마을 여성들은 허벅지로 물을 길어다 주었다. 집 한 채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상당히 많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사람들이 나서서 도와주어야 했다. 이때 집주인은 모든 마을사람들에게 물과 노동력을 부주(부조) 받아 집을 지었던 것이다. 부주는 과거 마을 공동체를 이끄는 힘이였다.

5. 금기와 믿음

1) 금기

[물허벅을 재미로라도 한번 쳐야지 하는 생각은 안했나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자분들이 욕해요. 남자가 거 한다고. [물팡에 물허벅이 있는데 그걸 쳐보고 싶어지지 않았나요?] 난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안나대요. 그때 당시에는.. 관심이 없어요. [물지게는 몇 살 때부터 쳐봤나요?] 내가 한 열 세살 쯤에?¹⁵⁵⁾

지금은 구별이 없지만, 옛날이야 상당히 구별이 많았지요. [허벅을 쳐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일절 없어요. 다 여자들이 헐 거라 생각들 해 버리고 남자들은 일절. 지금이나 진짜 여자 남자 뭐 험니다마는 옛날이야 노인들 여기 앉앙 놀머는 이쪽으로 여자들 지나가지도 못했어요. 노골적이지. 그렇게 심했어요. 여자들 지나가더라도 고개를 다 숙이고 지나가지 뻥뻥하게 지나가지 못했어요.¹⁵⁶⁾

남성과 여성의 지위를 차별하였다는 것은 유교적 사회에서는 관행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차별이 사대부가 아닌 일반 민중의 삶에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것은 여성사의 차원에서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물통의 사용은 결코 평등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물통을 제주인의 삶이

155) 고남훈(남), 1938년생, 삼양동.

156) 고무길(남), 1936년생, 삼양동.

라기보다는 여성의 삶의 현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니다.

물통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성별로 구분하여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물통에 얼씬거리면 안 된다고 여기고 있었다. 남자들이 몸을 씻을 수 있는 물통은 대개 따로 있었으며 그것은 대개 번듯한 물통이 아니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물통은 여자용이 번듯하게 있을 뿐이며 남자들은 여자들이 쓰지 않는 용천수를 남자용이라고 지정하는 정도이다.

삼양3동 새각시물은 그런 중에서도 남자들은 접근할 수 없다고 금기시하고 있는 물통이다. 물통 형상이 여성의 음부를 닮았다는 것이 이유이지만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빨래하고 물을 길는 물통에 남자들이 접근하는 것은 금기시 되어있다.

남자들이 그래도 여성들에게 양보한 것이 있었다. 물통에서의 노동을 여성에게 부과한 대신에 목욕을 하기위한 남자 물통은 좀 더 바닷가 쪽으로 가서 후미진 곳에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서한두기에서는 통물 아래에 머구낭물통이 있었는데 그곳이 남자들이 목욕할 수 있는 장소였다.

동한두기엔 없었지. 여긴 목욕 안해봐서. 매 맞젠.. 여기는 급수용이고, 여긴 빨래하고.. [남자나 여자들 다 여기서 목욕 했었나요?] 남자, 여자 그땐 옷들 다 입었 허니까.¹⁵⁷⁾

[그러면 이 다끄네 물통은 여자들의 물통이란 건데 남자들이 들어 올 때도 있잖아요?] 아이, 남자가 들어 오면 난리가 나주게. 남자 통은 다른데 이신디 왜 여자 통에 들어와? 여자통은 빨래도 허고 물도 질어가고 하느디. 난리가 나.¹⁵⁸⁾

다끄네 물통이나 한두기 통물통이나 여성전용 공간이었다. 그 표현은 ‘매 맞젠?(매 맞을래?)’ 이라고 하는 되물음이나 ‘난리가 나.’ 라고 하는 설명에 함축되어있다. 물통의 이용관행에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구분과 차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였다. 남자들이 ‘매 맞젠?’ 이라고 되묻는 것은 그 장소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음도 알 수 있게 한다.

157) 오영수(남), 1936년생, 용담동.

158) 한정렬(여), 1962년생, 용담동.

물통이 노동의 현장인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그들만의 공간이기도 했다. 물통을 자유롭게 이용한 것은 여성들이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만 주어진 물과 관련된 노역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다.

남자물통과 여자물통을 비교해보면 남자물통에 비해 여자물통을 잘 정비되고 규모도 크게 마련이다. 당연히 여성을 우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물을 길고, 빨래를 하고, 채소를 씻는 모든 행위는 여성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남자 물통은 단지 몸을 씻은 용도와 가끔 돛추럼과 같은 일이 있을 때 외에는 용도가 다양하지 않았다.

이 물통에가 돛(돼지) 추점허댄(더럽다고) 행 안 잡지. 그자 원장내 강 너르다락
헌 내창에 강 그자 모음대로. 보리낭(보리) 훈 짐 썩덜 강 그실리멍(그실리면
서).¹⁵⁹⁾

그디서(거기서) 아무것도 안합니다. 돛(돼지)들 막 잡양 먹어도 이 물에서는 돛
을 안 잡아나수다. [돼지는 어디서 잡게 되나요?] 원장내. 내 노리는 디 그디강.
... 이디선 절대 경 안해. 마을서가 먹는 물이난. 돛 잡양 안 되지게. [더러운 빨
래도 있을텐데요.] 팡팡 내리는 물 인디 더러운 빨래가 어디 이수짜. 물 싹 때
랑 와 볍써. 물 팡팡내리는 디. [몸에 것. 생리 물은 것도 빨았나요?] 그것도 다
거기서 빨주. 알래로 팡팡 내리는디. 게게 다 빨주게. [돛추럼은 못하게 하면서
요?] 그런 건 아니 해반. 옛날부터라도. 바탕에 강 잡으나 어디 강 잡아도 못
허게 해 나수다.¹⁶⁰⁾

기본적으로 물통에서는 돛추럼¹⁶¹⁾이 금지되었다. 물통의 정화력은 대단하다는 믿음이 있어서 어떤 더러운 빨래라도 그곳에서는 깨끗하게 빨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돼지를 잡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물통에서 잡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이는 물통이 깨끗한 곳이고 돛추럼을 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이런데서 삶기도 했나요?] 예 솔 앓혀서. [고기 같은 거 날거 씻기도 하구요?]

159) 강갑인(여), 1923년생, 이호동.

160) 김임순(여), 1930년생, 이호동.

161) 각기 돈을 얼마씩 내어 돼지를 잡아먹는 일 : 제주특별자치도, 『증보 제주어사전』, 2009. p.260.

고기 같은 거 날거 씻기도 하는 디. 이쪽에서 못허게 해요. 저쪽에서.. 창자같은 거는 비닐에 담아다가 쓰레기통에 놓고... 옛날에는 그냥 던졌지. 옛날은 아무데 서나 했어요.¹⁶²⁾

돛추렴 뿐 아니라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도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여자물통에서는 손질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역시 물고기가 갖는 비린내는 깨끗한 물통에 적합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바다에 그냥 버려도 깨끗하게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면서도 물통에서는 더러워진다고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였다.

[새각시물 이런데서 고기나 이런 거 막 잡아도 괜찮나요?] 아이, 그건 여기서 안돼요. 고기 잡는 거는 여기 별도로. ... 씻는 것도 바닷물에서 씻어요. [물통에서 씻는 것이 아니고 ..] 물통에서 안했어요. [잔치하게 되면 돛추렴은 어디서 하나요?] 저기 보면 너른 돌이 있어요. 거기서 그냥. [분육을?] 물로 다 씻으멍... 해부하는 거지요. [해부를 바닷가에서 한다구요?] 물위에서 다 하는 거지요. ... 그때 당시에는 짠물이 깨끗했어요.¹⁶³⁾

돛추렴을 하는 것은 물통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을 이용하였다. 물통에서 돛추렴을 하지 않은 것은 금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분육한 고기는 바닷물로 일차적으로 깨끗이 씻고 나서 제각기 집에서 다시 손질하였다. 바닷물로 씻는 것도 짠물이 깨끗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깨끗하기 때문에 바닷물로 씻는 것만은 아니다. 돼지고기와 날것에 대한 생각은 그로 인해 물통이 오염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추렴하는 것은 보셨나요?] 예. 돛을 영 돌아매기네 죽여가지고 밑에 불로 기시리는 거 털, 터럭 털 해기네 마을사람들 한 이젠 그람이랜 허주만은 한 근 살 사람 두 근 살 사람 해그네 예 설 때나 이럴 때는 허고. [자를 때 피도 나고 하면 씻어야하는데 씻는 물은 어느 물로 하나요?] 물? 물이야 이 동넨 물이 풍부하니까 민짜 물이지. ... [그래도 물통 속에서 잡진 않고 밖에서 잡았다는 거지요?] 아, 그쵸. 이제는 물이 흐르지 안허주만은 물이 다 흘러내려가부런 깨끗허영. 물방애 있는 디서 잡았는디, 물방앗간에서 잡으면은 이젠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허주만은 피 같은 거 나면은 물이 싹 흘러내려가부러. 깨끗하게. 씨레기라

162) 송여숙(여), 1932년생, 삼양동.

163) 고남훈(남), 1938년생, 삼양동.

는 것이 어서마씨.¹⁶⁴⁾

지금이야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전에 돛추렴하고 남은 찌꺼기들이 바닷물에 씻겨가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았다. 돛추렴은 대개 바다물이 들어오는 인근에까지 가서 잡았다. 돛추렴하고 난 부산물을 바닷물이 청소해 준다는 생각은 바닷물이 물통의 지저분한 먼지를 청소해 준다는 생각과 닮아있다. 바닷물에 의한 정화력도 하나의 해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믿음이다. 용천수에서 금기시하는 돛추렴에 대한 정화를 바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2) 믿음

용천수와 관련한 제주인의 생각을 살펴보려면 신화와 전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고종달 설화¹⁶⁵⁾에서는 좋은 용천수가 솟는 마을에는 훌륭한 인물이 태어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중국 진시황은 제주에서 인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고종달을 시켜서 제주의 물 혈을 끊으라고 했는데 이에 고종달은 종달리를 중심으로 제주의 혈맥을 끊었다고 한다. 현길언은 고종달의 설화를 물이 귀한 지리적 상황을 설명하는 자연전설이기도 하지만 제주의 정체성을 <王候之地>로 설명하는 존재성을 강조하는 설화라는 데에 더욱 의미를 두었다.¹⁶⁶⁾

고종달이 수맥을 끊었다고 하는 것은 물을 뛰어난 인물이 태어나게 하는 정기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종달이 혈맥(수맥)을 끊으려 했으나 끊지 못하여 남아 있게 되었다는 식의 전설은 토산리 ‘거슨새미’, 서귀 홍리(烘里)의 ‘새미물’에서도 나타난다. 한편 신촌리의 ‘강초간물’의 전설에서도 샘물을 용맥의 정기로 표현하고 있다.¹⁶⁷⁾

신화와 전설 속에서 김통정 이야기는 제주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재이다. 물론 삼별초의 영향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전설 속의 김통

164) 김충식(남), 1934년생, 용담동.

165)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2002, pp.35-39.

166) 현길언, 「물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인문학적 인식 : 제주설화를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Vol.12, 1995, p.45.

167) 현용준, 앞의 책, p.32, pp.39-40.

정과 삼별초의 김통정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로 접근하기 보다는 이야기 구조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성리 강태언씨에 의해 채록된 내용은 삼별초의 김통정을 지칭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전설이다.¹⁶⁸⁾ 여기에서 김통정은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내 백성은 물이나 먹고 살아라.’ 라고 바위를 팡 찍었더니 샘물이 솟았다고 하고 있다. 죽음을 앞둔 절박한 상황에서 샘물을 만들어주었다고 하는 것은 물을 중시하는 제주인들의 인식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용천수의 모습을 여성과 연관 지어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도 역시 간간히 확인할 수 있다. 대정고을은 풍수적으로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이라고 하는데 모슬봉의 옥녀가 금산의 거문고를 타는 형태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대정 ‘드렁물’은 옥녀의 하문(下問)으로 알려져 있고 평소에 물이 잘 나오다가도 고을 현감이 악정을 베풀면 물이 일시에 말라버린다고 한다.¹⁶⁹⁾ 보목리(甫木里) 고전적(高典籍) 부친의 묘 전설에서도 샘물을 여성의 생식기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표현하고 있다.¹⁷⁰⁾ 하지만 물과 여성을 빗댄 풍수적인 관점은 제주의 고유적인 사고를 보여 준다기보다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풍수적사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전설이 대개 사실에 근거하여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신화는 사실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때문에 신화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밝히려고 시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세계를 이해하는 관점과 같이 관념적인 면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신화와 같은 신비스러운 이야기 속에 많은 생각들이 녹아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신화를 통해서 물이 어떤 이미지로 그려져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집단무의식¹⁷¹⁾에 잠겨 있

168) 위의 책, p.98.

169) 위의 책, p.235.

170) 위의 책, p.216.

171) 융은 인간의 인격 전체를 정신이라고 부른다. 그는 정신을 의식, 개인무의식, 집단무의식의 세 가지 수준으로 구별하였다. 의식의 개성화 과정에서 자아가 생겨난다. 자아가 의식화를

는 공동체의 내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희귀하게 채록되는 천지창조 신화의 형태인 천지왕본풀이는 애초에 혼돈으로 되어있었던 세상이 하늘과 땅이 갈라지면서 하늘에서는 청이슬이 내리고 땅에서는 흑이슬이 솟아나 합수되어 세상만물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⁷²⁾ 여기에서의 물은 만물의 근원으로 이해된다.

차사본풀이에서는 강님이가 행기못으로 뛰어들었더니 저승 연추문에 닿아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올 때에도 강아지가 행기못으로 이끌어서 이승으로 돌아온다고 한다.¹⁷³⁾ 행기물에 대한 이야기는 ‘고종달’ 전설에도 나온다. 고종달 전설에서는 화북의 수신(水神)이 행기물에 몸을 숨기어 화를 면하게 된다고 한다. 행기는 제사 때 쓰는 낚그릇을 말한다. 조그만 낚그릇 속에 들어있는 물속을 따라 들어가면 저승으로 간다고 하였으니,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통로로서 물이 갖는 통과 의례적 성격을 정확히 보여준다 할 것이다.

용천수 중에서는 특별한 효험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 이호동의 문수물은 샘솟는 물에 눈병이나 피부병을 씻으면 효험이 있다고 믿고 있다. 이형상의 『남환박물』(1704)에는 제주 동성(東城) 안에는 산저천(산짓물)이라는 이름난 물이 있는데 토질(土疾)에도 이 물을 마시면 차도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⁷⁴⁾ 또, 『조선왕조실록』에는 왕이 심한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 약수를 찾았다는 기록도 보인다. 오랜 역사성과 신비성을 지닌 약수는 깨끗하고 맛이 좋으면서 반드시 약(藥)과의 상관성이 있어야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약수라는 이름에는 이미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어져서 붙은 이름이다. 그러한 치유의 힘이 있다는 것은 신성한 물이라는

허용한 경험만이 인간의 의식 속에 존재한다. 자아가 인정하지 않은 경험이 머무는 곳은 개인무의식이다. 개인무의식은 의식적인 개성화과정과 조화되지 않는 정신적 활동과 내용을 저장하며 그 특징은 콤플렉스이다: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931&cid=41799&categoryId=41800>

172)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96, p.11.

173) 현용준, 앞의 책, pp.115-119.

174) 이형상 저, 오창명 역, 『남환박물』, 푸른역사, 2009. pp.64-65.

의미와 약수터는 성역이라는 의미를 갖는다.¹⁷⁵⁾ 권태효는 우물의 기능으로 치병과 재생의 공간으로 작용함을 언급한바 있다.¹⁷⁶⁾ 이호동의 용천수 문수물은 육지부의 우물과는 다르지만 물이 치병의 기능을 갖는다고 믿는 사례이다.

쌍원담 속에는 용천수가 있는데 문수물이라고 해요. 원래 문수물은 쌍원담을 만들기 전에도 있었는데, 오모록고(오목하고) 동골락현(동근) 곳으로 물이 솟아나 그곳을 시멘트로 둥글게 만든 겁니다. 옛날에는 몸에 땀띠(땀띠)나고 허물(부스럼)이 날 때 이물로 씻어서 치료했어요. 그래서 약물이라고도 부릅니다. 현사 마을사람들은 여러 군데 물이 풍부하게 나와서 굳이 문수물을 식수로 길러 오지는 않았어요.¹⁷⁷⁾

치병의 기능과는 다르지만 삼양1동 셋도리물의 경우에는 아들을 점지해주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셋도리물이엔 해낫주. 셋도리물. 절에서도 길어다 먹언. 아들 못난 사람은 거기 새벽에 물 질어당 공양허민 아들 낫주게. 딸 다섯 성제 나신가 그 어른. 그 디물 질어당 공양허난. 원당절 옷 절간에..¹⁷⁸⁾

삼양1동 김화연은 셋도리물이 절에서 정성을 들이는 물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아들을 점지해주는 영험한 능력이 있는 물이라는 믿음은 셋도리물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주게 된다. 아들을 점지 해준다는 믿음은 치유의 성격과는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는 기술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화적인 믿음이다. 정화력이 있는 물에 대한 믿음은 신앙적 지위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물에 대한 정화의 기능은 제의의 과정에서 드러난다. 제주에서는 새해가 되면 마을마다 제를 지내게 되는데 정화력이 있다고 믿어지는 신성한 물을 제의를 위한 물로 사용하게 된다. 그때는 마을에 깨끗한 샘을 골라

175) 김명자, 「세시풍속을 통해 본 물의 종교적 기능」, 『한국민속학49호』, pp.174-176.

176) 권태효, 「우물의 공간적 성격과 상징성 연구」, 『민족문화연구56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p.285.

177) 현순나(여), 1945년생, 이호동.

178) 김화연(여), 1938년생, 삼양동.

금줄을 쳐 두었다가 제물을 준비하는데 쓰게 된다.¹⁷⁹⁾

[옛날에는 남자만 제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물은 어떻게 떠 오게 되나요?] 물은 미룻(미리) 항에 지당 딱 나두지. 미리 혼 오일 전에. 책임자네 집에. 그 때엔 책임자네 집에서 허주게, 돌아가명. [그럼 그 물은 어디 물을 씬니까?]...이 거릿(린)물. 그 물 한 오일 전에 항 두어개 질영 딱 봉허연 놔 두지게. 낫당 제 할 때 쓰지. 겐디 이제 덜은 것이 아니라... 원장물까지는 원 세계 사름 못오게 딱 금줄 매지. [원세계 사람들이라니요?] 원 동네 사름 덜 들어오지 못허게. [아, 다른 동네 사름들이요?] 응. 삼일간 정성허지... [그러면 금줄은 며칠간 매게 되나요?] 삼일간. 지가 끝나민 밤에 금줄을 걷어부러, [그러면 그간엔 다른 사람들 물통에 못 오나요?] 못 와. 딱 금해. [마을 사람들은 먹을 수 있구요?] 이녁 동네 사람들도 정성으로 물 미리 떠다 놓고, 빨래도 허지 말랜 허민 빨래도 안허. 다 정성으로 삼일간은 빨래도 안허. [이 거릿물은?] 그 게 거릿물, 빨래도 못허게 허여. 동네 지(제) 돌아와 가민 집집마다 다 준비해영 물통에 안가. [물통에 아예 안가마씨?] 안가지. 준비를 딱 허민 지 지내는 밤이 혼 11시반 되가민 지 지내지. 지 지내민 지관들 들어오명 금줄덜 다 걷어부러. [물통마다 금줄을 다 매게 됩니까?] 다 메여 [문수물도요?] 다 메여. [저 조그만 문수물도 다 메여?] 물통마다 마 메여. 경허민 정성으로 원동네 사름도 이 동네 지 지낸찌 허면서 오질안허.¹⁸⁰⁾



거릿물은 이호동 동물의 이칭(異稱)이다. 이호동에서 마을제를 지낼 때가 되면 동물뿐만 아니라 원장물과 문수물까지도 금줄을 매었다고 한다. 식수로 이용하지 않는 문수물까지 금줄을 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금줄을 매면 물을 이용하는 것이 꺼려지기 때문에 조심하는 사람들은 미리 물을 받아두어서 물통 출입을 삼갔다. 삼일간 정성을 드리는 기간에는 다른 마을 사람들의 접근을 금하거나 빨래 등의 행위를 금하는 불편한 관행들도 역시 물의 신성함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믿음에 기인한 것이다.

179) 용담동지편찬위원회, 『용담동지』, 세림원색인쇄사, 2001, p.228.

180) 강갑인(여), 1923년생, 이호동.

IV. 맺음말

지금까지 제주 용천수와 관련된 연구는 다소 진행되어 왔지만 대개 용천수의 자연과학적인 가치를 밝히고 수량과 수질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생활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용천수와 물의 가치를 확인하는데 주목하고자 하였다.

대개는 과거의 문화가 매우 의미 있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삶의 현장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겉으로 바라보는 음미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쉽다. 생활문화 현장으로서의 용천수 모습들은 그 속에 내재된 생활 그 자체를 이해함으로써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다. 용천수의 이용관행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생활문화적 가치, 그리고 제주인의 물과 관련한 인지체계를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에 의의를 두었다.

서론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방법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일인학자들의 연구에서는 용천수와 마을형성의 관계를 흥미있게 살펴볼 수 있었다. 그 후 국내학자들의 연구는 주로 제주물이 갖는 질적인 우수성을 확인하는 자연과학적 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용천수의 질적인 우수함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닌, 용천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주인의 미시사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때문에 연구의 방법도 인류학과 민속학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인터뷰를 위주로 하는 현장연구를 제시하였다.

II장에서는 용천수의 개념을 고찰하여 사용되는 이름이 갖는 인문학적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산물’이라는 이름과 학계에서 사용되는 ‘용천수’라는 이름의 차이를 통해 제주인이 생각하고 있는 용천수의 공동체적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더불어 용천수 이름의 용례를 통해 이칭(異稱)이 가지는 의미를 부분적으로나마 확인 할 수 있었다.

III장에서는 이호동, 용담동, 삼양동 용천수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용천수의 이용관행을 살펴보았다. 특히 용천수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어떻게

사회적 관계망을 이루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물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관계는 경계가 분명한 마을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용천수를 통해 공동체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과정과 바다와 함께하는 생태적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용천수가 생활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산물’이 주를 이루었다. 산물이란 한라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라는 의미이다. 용천수가 한라산에서 내려온 물이라는 것은 한라산이 가지고 있는 신성함을 빌어 마을 용천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받아들이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산물이라는 용어 속에는 제주 용천수가 내포하고 있는 신성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제주인의 의식 속에서 한라산과 물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적인 거대한 심적(心的) 네트워크를 가지게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용천수는 마을의 자부심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이며 공동체적 연대감을 만들어내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연대감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를 묶어주는 심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마을사람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물과 물통이 가지고 있는 연대감은 마을공동체를 묶어주는 것이다. 그러한 연대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용천수의 효능, 신앙, 믿음 등과 더불어 수량과 수질에 대한 평가와 자부심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자기가 속한 마을이 매우 살기 좋은 마을임을 입증하게 되고 그러한 자부심은 마을공동체를 지속시키는 바탕을 이루고 있다. 특히 해안용천수를 이웃마을과 더불어 이용하는 형태는 제주의 해안마을과 중산간마을이 물 이용관행을 통하여 공동체적 연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셋째, 물통이라는 공간은 특히 제주여성의 생활사를 대변해준다. 제주 용천수가 솟아나는 곳은 일반적으로 남자물통과 여자물통을 구분하여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구분은 물통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현장이 성별로 다르게 이해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여자물통에서는 물 길기, 송키(채소) 씻기, 빨래하기, 몸 씻기 등 다양한 용도에서 과거 제주여성으로

써 삶의 드라마틱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물통과 함께하는 삶 현장의 특별함은 물때에 맞추어 몸으로 체득한 시간에 따라 규칙적인 생활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여자물통은 가사노동의 현장이기도 하면서 전통사회를 이끌어온 현장이었다.

한편, 편리한 상수도를 도입하는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사회의 물통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용천수는 단순히 식수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물의 이용관행은 마을 일원으로 소속감을 가지게 되며 물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은 자연 속에서 인간이 호흡하는 생태적 삶의 현장이었다. 이러한 전통사회의 가치는 각 가정마다 식수가 공급되고, 목욕만을 위한 목욕탕이라는 근대적 시설의 탄생 등을 통해 공동체가 와해되는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더욱 복잡해지고 개인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연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물통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를 본 연구에서 늘 고민하게 하는 과제로 등장하였다.

제주도는 작으면서도 넓다. 작은 섬에 불과하지만 그 작은 섬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부분문화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연구자로서는 너무도 넓은 섬이다. 본 연구는 제주시 행정동지역 용천수의 부분적인 사례를 통해 고찰하였다. 차후 더욱 연구범위가 확대되고 정밀한 조사를 통해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사료

- 『朝鮮王朝實錄』
林悌, 『南溟小乘』, 1577.
金尙憲, 『南槎錄』, 1602.
李元鎭, 『耽羅志』, 1653.
李衡祥, 『南宦博物』, 1704.

2. 단행본

- 강순석, 『제주도 해안을 가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04.
건입동향토문화보존회, 『건입동지』, 1996.
고광민, 『濟州島浦口研究』 도서출판 각, 2004.
_____,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국립민속박물관, 『허벅과 제주질그릇』, 디자인문화, 2007.
김봉옥 편역, 제주문화방송주식회사, 『續耽羅錄』, 경신인쇄사, 1994.
박용후, 『제주도 옛땅이름 연구』, 제주문화사, 1992.
박원배, 『제주 물 용천수의 효율적인 관리·보전 방안모색』, 제발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JID OPINION <제103호>, 2010.
북제주군, 『북제주군(上)』, 2000.
삼양동지편찬위원회, 『삼양동지』, 태화인쇄, 2008.
용담동지편찬위원회, 『용담동지』, 세림원색인쇄사, 2001.
윤택림, 함한희, 『구술사연구방법론』, 도서출판아르케, 2006.
안미정, 『제주잠수의 바다밭』, 보고사, 2008.
오성찬, 『제주도토속지명사전』, 민음사, 1992.
오창명, 『제주도마을이름의 종합적연구(1)』, 제주대학교출판부, 2007.
이원진 저, 김찬흡 외7 역, 『역주탐라지』, 푸른역사, 2002.
이형상 저, 오창명 역, 『남환박물』, 푸른역사, 2009.
이호동지편찬위원회, 『이호동지』, 고인쇄종합사, 2007.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용기』, 나무망치, 2011.

- 제주도, 『제주100년』, 현대문화인쇄사, 1996.
- _____, 『제주의 물, 용천수』, 1999.
- 제주도교육위원회, 『耽羅文獻集』, 신일인쇄사, 1976.
- 제주문화원, 『역주 제주고기문집』, 2007.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의 명수 이용과 보전방안』, 재승인쇄, 2004.
- 제주특별자치도, 『증보 제주어사전』, 2009.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가 펴낸 우리 고장 이야기』 「제주시(IV) 구좌읍·조천읍」, 2014.
- 주강현, 『돌살』, 도서출판 들녘, 2006.
-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접·계 문화 조사보고서』, 2010.
-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96.
-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2002.
- 桒田一二, 홍성목 역, 『濟州島의 地理學的 研究』, 경신인쇄, 2005.
- 靑柳綱太朗, 홍종우 역, 『朝鮮의 寶庫 濟州島 案内(1905)』, 우당도서관, 1998.
- 泉靖一, 홍성목 역, 『濟州島』, 제주우당도서관, 1999.
- James P. Spradley, 신재영 역, 『참여관찰법』, (주)시그마프레스, 2006.
- 善生永助, 홍성목 역, 『濟州島生活狀態調査』, 경신인쇄, 2002.

3. 논문

- 고기원, 문영석, 강봉래, 송시대, 박윤석, 「제주도의 용천수의 분포와 용출유형에 관한연구(1) -제주시 및 애월읍지역에 대하여-」 대한지질학회 학술발표회, 1998.
- 권태효, 「우물의 공간적 성격과 상징성 연구」, 『민족문화연구56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 김경찬, 「제주도 서귀포지역 용천수의 수질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김명자, 「세시풍속을 통해본 물의 종교적 기능」, 『한국민속학49호』, 2009.
- 김재호, 『산골사람들의 물 이용과 민속적 분류체계』 -예천군 선동마을의 사례-, 안동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6.
- 김종훈, 안종성, 「제주도 용천수의 수질화학적 특성과 연대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화학학회지 제 36권 제5호, 1992.

김태희, 김구연, 전철민, 문덕철, 박원배, 박기화, 고기원, 『용천수 유출 패턴 분류와 조간대 용천수의 조석에 의한 영향 검토를 통한 제주도 지하수 순환시스템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2007.

박상운, 「제주도 용천수의 수량변화와 수리화학적 특성」, 제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7.

박원배, 「제주도 지하수위 수위변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1993.

_____, 「제주도 물 문화의 소고 : 용천수를 중심으로」, 제주발전연구원, 2009.

현길언, 「물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인문학적 인식: 제주설화를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Vol.12』, 1995.

4. 웹사이트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www.jpdc.co.kr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doopedia>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http://jeju.gradculture.net>

문학비평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

5. 구술채록 대상자

① 이호동

장갑인(女) 1923年生 : 2014년 12월 구술채록.

김임순(女) 1930年生 : 2014년 9월 구술채록.

김정순(女) 1947年生 : 2014년 10월 구술채록.

이희문(男) 1954年生 : 2014년 11월 구술채록.

장남옥(男) 1937年生 : 2014년 12월 구술채록.

현순나(女) 1945年生 : 2012년 10월 구술채록.

② 용담동

김임생(女) 1942年生 : 2012년 8월 구술채록.
김종정(女) 1921年生 : 2014년 12월 구술채록.
김충식(男) 1934年生 : 2014년 11월 구술채록.
신경천(男) 1945年生 : 2012년 8월 구술채록.
오영수(男) 1936年生 : 2012년 8월 구술채록.
이상인(男) 1936年生 : 2014년 10월 구술채록.
한인순(女) 1954年生 : 2014년 11월 구술채록.
한정렬(女) 1962年生 : 2014년 11월 구술채록.

③ 삼양동

고남훈(男) 1938年生 : 2014년 11월 구술채록.
고무길(男) 1936年生 : 2014년 10월 구술채록.
김애자(女) 1946年生 : 2012년 10월 구술채록.
김화연(女) 1938年生 : 2014년 9월 구술채록.
변말자(女) 1940年生 : 2014년 10월 구술채록.
송여숙(女) 1932年生 : 2014년 10월 구술채록.
홍순자(女) 1939年生 : 2014년 12월 구술채록.

